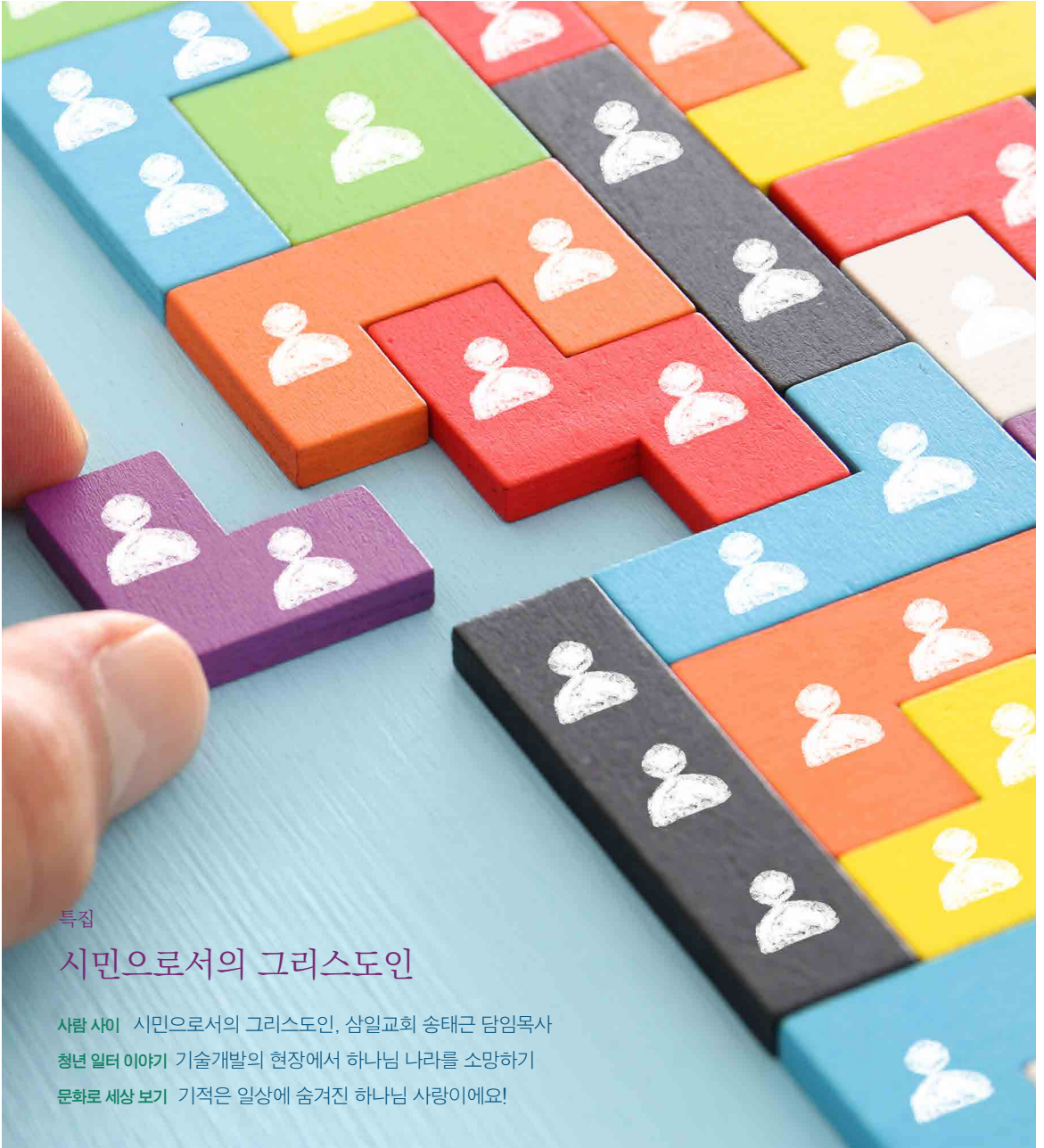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11 + 12
NOV + DEC
2020 vol.9



특집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사람 사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삼일교회 송태근 담임목사
청년 일터 이야기 기술개발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문화로 세상 보기 기적은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 사랑이에요!

ISSN 2671-8731

Contents

NOVEMBER + DECEMBER · 2020

시선

공익에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시민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모범을 찾아서 | 신국원 04

특집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광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 박은호 06

지능정보사회와 재난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 | 조영달 08

‘코로나 19’ 시대에 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 김대인 10

코로나에 감염된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 배덕만 12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공존하는 사회 | 황영철 14

사람 사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삼일교회 송태근 담임목사 16

섬김의 자리에서

‘앎’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 정희영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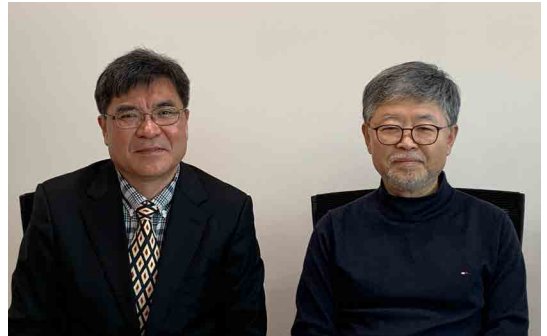


2020. 11+12월호 | 제9호(통권 224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후회없이 사랑하자 조예상	22
세상이 줄 수 없는 짜릿함 윤수아	24
청년, 일터 이야기	
천국 국기를 달고 살아 보자! 김수진	26
기술개발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김다빈	28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기적은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 사랑이에요! 추태화	30
미술을 보다	
공감적 감수성으로 이웃에 다가서는 작가들 서성록	32
책을 보다	
좋은 사회 참여와 나쁜 사회 참여 편집위원회	34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긴급성 김희권	36
공공신학의 다양한 얼굴 최경환	38
성령의 열매 문준호	40
'현대'(Modern Age)를 넘어서 황영철	42

운전한 지성

2020년 추계학술대회 이모저모	44
창조질서의 관점에서 본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면역체계의 변화 유영춘	45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성 : 기독교인의 관점 홍종호	46
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노영상	47

교회 路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 소개 김정일	48
소감문 : '해이!세!'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가정 김주은	49
2020 가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주제강연 요약 신국원	50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51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3

발행일 2020.12.1 발행인 손봉호 편집장 신국원 편집실무 석중준
 발행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9층
 전화번호 02.754.8004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ISSN 2671-8731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집 02.521.1474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공익에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시민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시민’이란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를 구성하는 자유시민(polites)을 지칭한 데서부터 사용되었다. 도시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노예, 여자, 상인, 외국인은 제외되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바울 사도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 외국인 등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당한 권한과 특혜를 누렸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화된 시민 개념은 12세기 전후 서양의 봉건제도 붕괴와 함께 출현한 도시 주민들에서 시작되었다. 봉건 군주를 위해 노동하고 그의 보호를 받던 농노(農奴)들 일부가 그 때 도입된 나침판으로 가능해진 원양 무역과 수공업으로 부를 축척하게 되자 교통이 편리한 강이나 바닷가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군주에게 상당한 양의 조공을 바치는 대신 일정 정도의 자유를 얻고 기사(騎士)대신 그 때 도입한 화약을 이용한 총으로 치안과 방위를 감당하므로 일종의 자치령을 이룩하게 되었다. 베니스, 피사, 함부르크 등이 그런 도시들이었고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효시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다. 바로 그런 자치도시의 주민들을 ‘시민’이라 불렀다. 따라서 ‘시민’은 노

예, 백성, 국민과는 다른 함의를 갖게 되었다. 단순히 어떤 정치 공동체에 소속되어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한 자유와 권한을 누리면서도 그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군주국가, 식민지, 독재국가의 주민들은 백성, 국민은 될 수 있지만 시민은 될 수 없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민들만 시민이란 자격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시민 개념은 성경적 인간관에 가장 잘 어울린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보편인권 사상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고귀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누리려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힘과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이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국한되면 거의 확실하게 부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평등한 자유와 권리 향유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책임도 동일하게 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까

지 인류가 개발한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이고, 성경의 인간관에 가장 충실하다 할 수 있다. 왕권 신수설이 지배했던 16세기에 이미 칼뱅은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한 것은 그가 성경의 인간관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세계에서 시민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보존하고 바로 성숙하게 할 책임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적 의무보다는 사적인 이익과 권리 향유에 더 몰두하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을 이용하는 인기영합주의(populism)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그 가장 심각한 본보기고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85%가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당선한 트럼프가 기후 온난화와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자국 이익만 추구하므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자체에까지 막대한 해를 입히다가 선거에 패배한 사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미국 복음주의자들 비슷하게 이념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시민사회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민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인격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의 부패를 막기 위해 시민운동에 참

여하고, 인류 전체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판단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등으로 꺾을 수 있는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조차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촉구하고 동료 시민들을 깨우치는 열성도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도 인간의 약점과 불완전한 운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허용된 자유가 사적인 이익 추구에 남용되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결과로 그 경쟁에 진 약자들은 불공정하게 불리한 위치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시민들은 가난한 자, 장애인, 병든 사람들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적 이익을 절제해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 시민에게 가장 두드러져야 할 특징은 개인적인 권리 향유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도 임무와 책임 수행에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민사회에서 십자가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방식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 도산인상,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모범을 찾아서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코로나 19’ 사태는 한국 교회 시민의식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공적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선>에서 공익을 위해 예수 사랑의 적극적 실천을 간곡히 당부한 것은 바로 이 안타까운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특집> 글들도 같은 필요에 동감합니다. 박은호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택시 기사와 어려움을 나눈 일화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 아니라 광장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조영달 교수님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에 이념 갈등까지 겹쳐진 지금 하나님의 초월성에 기초한 성찰을 요청합니다. 배덕만 교수님은 대면 예배 금지에 맞서다 “코로나에 감염된” 교회가 사회의 비난과 내부 갈등을 겪는 것을 탄식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 추구를 실천할 때 민족과 역사 앞에 등불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할 것을 주문합니다.

김대인 교수님도 대면 예배를 둘러싼 법적 현안을 돌아봅니다. 사회법에도 성경적 율법의 하나님과 이웃 사랑 정신이 “불완전하게나마 반영”되어 있기에 정부 시책이 이웃 사랑의 실천 방법일 경우 잘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필요 범위를 넘은 “남용될 경우에는” 적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황영철

목사님도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특히 질서의 유지를 맡은 이들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박동렬 교수님과의 대담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왜’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것을 권고합니다. 초대교회가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문 것을 예로 듭니다. 지금은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허영과 허세를 극복하고 교회가 정화되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기적 자아에서 이타적 자아와 공공적 자아로 인식의 전환과 공동체 회개의 필요를 강조합니다. 선지자 요엘서를 토대로 공공적 자아로 교회 자신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회복의 길임을 밝혀주셨고요.

총신대 유아교육과 정희영 교수님은 본회 학문학회장을 거쳐 이사로 섬겼습니다. 40년 교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전기가 동역회와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 교육 전반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이라고 회고합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 목회자 아내로 헌신하시다 쓰러지신 어머님을 좀 더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한 송구함을 나누는 조예

상 형제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자”는 말이 울림이 됩니다. 윤수아 자매는 가장 소외되고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돕는 헌신을 통해 이기적 목적을 넘어서는 도전을 소개합니다. 김수진 자매는 “건방질 만큼 대담한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신 주님과 함께 지난 6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직장생활을 한 간증을 합니다. 김다빈 형제는 공학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을 나눕니다.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문제를 씨름하며 신앙인 공동체의 학자들과의 교류를 꿈꿉니다.

추태화 교수님은 “기적은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 사랑”임을 <미라클 프롬 헤븐> 영화평을 통해 보여줍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그리스도인 미술인들의 모임인 ‘아트미션’의 <기억하는 사람들> 전시를 소개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공동체 위기에 “공감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웃에 다가서는” 작품에 담긴 마음이 적대적인 시선과 의문을 해소시킬 방안이 아닐까라고 제안합니다.

<책을 보다>에선 우스노우의 <기독교와 시민사회>가 오늘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종교개혁의 이신칭의의 확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핵심임을 강조한 김세운, 김회권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긴급성>, 그리고 ‘과학과 신학의 대화’ 최경환 사무국장님의 <공공신학의 다양한 얼굴>은 저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저서를 소개한 글입니다. 문준호 박사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개발의 중요성을 다룬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을 다루었고, 황영철 목사님, 웨슬리 선교사님은 현대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진단하는 <Beyond the Modern Age>를 소개합니다.

<교회로>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삼일교회 어린이 세계관 학교를 소개합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진행된 이번 학기는 오히려 이런 과정의 필요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함께한 김주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의 주제를 다른 세대 아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기쁨으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환경,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목포 대학교에서 열린 제37회 연차학술대회 소식을 실었습니다. 유영춘, 홍종호, 노영상 교수님의 강연과 4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맞아 개혁신학회에서 신국원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도 별도로 소개됩니다.

어려운 한 해를 지나지만 그래서 더욱 감사가 짙은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헌신으로 글을 써 주신 모든 분들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역 회원과 후원 교회에 새해에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이며,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실천신학)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 변증학)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과 <신앙과 삶> 편집장,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광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박은호 (정릉교회 담임 목사)

흔히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지나치게 교회 안에만 묶어두려고 했던 한국교회는, 전환기 시대 속에서 그 설 자리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참서글픈 현실이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신앙과 삶의 문제는 이 시대 광장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인 동시에 목사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여전히 버거운 인생 최대의 과제 중의 과제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대사회적인 부끄러운 자괴감 때문에 몸 둘 바를 찾지 못할 지경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 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유진 피터슨, <The MESSAGE>)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면 오늘의 한국 교회는 길 밖에 버려진 채 사람들이 마구 짓밟고 다니는 소금과도 같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어 버린 오늘, 사람들은 한국 교회 개신교인들을 타종교인들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거리 두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그 정

서에 밑바닥에 숨겨진 역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종교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많아서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문제의 요인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고유의 그 짠맛' 곧 '하나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의 광장 한복판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신앙과 삶'의 맛을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이다. 신앙과 삶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통전적(統全的)으로 드러나는 실존의 문제다. 이론적인 논설보다는 필자가 며칠 전에 겪었던 실제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며칠 전, 필자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출신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로 임직하는 예식이 있었다. 목사 임직을 주관하는 노회에서, 안수자의 목사 임직을 위한 안수 기도자로 두 사람을 초청하게 했다. 필자가 그 중 한 사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식에 참여하면서 필자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안내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왕복 이동에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택시 기사 분들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납입금도 채우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이다. 목사 임직 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용했던 택시에 작은 문제가 있었다. 필자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큰 대로변으로 나와서

‘티맵’(T map) 택시를 호출했다. 마침 그 주변을 지나던 한 택시가 금방 호출에 응답했다. 10여 분을 기다리자 그 택시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도착한 그 택시는 필자가 가려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와서 골목길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얼른 택시 기사 분에게 전화했다. “그냥 그곳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라.” 그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택시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다. 문제가 발생했다. 기다리던 그 택시가, 골목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서 길가로 비켜서는 과정에서, 1미터 가량의 낭떠러지 턱을 보지 못한 채 뒤쪽 바퀴 하나가 빠지고 말았다. 애를 써 보았지만 자력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견인차를 불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견인 비용이 팔만 원이라고 했다. 택시 기사 분은 한동안 망설이시더니 견인차를 불렀다. 복잡한 교통체증 시간이라 견인차가 현장에까지 오는 데 50분이 더 걸렸다. 기다리는 동안, 택시 기사 분은 “바쁘신데... 다른 차를 이용해서 가시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서 당황해하고, 하루 온 종일 일한 수입의 절반을 견인비로 써야 하는 그 난감한 상황을 외면하고 다른 차를 이용해 귀가할 수가 없었다. 마침 외투도 입지 않은 상태로, 그 택시 기사와 함께 찬기운 바람 부는 길에서 한 시간 이상을 같이 있었다. 견인차가 뒤늦게 와서 견인한 다음, 그 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 시간 이십여 분 만에 겨우 택시에 승차할 수 있었다.

그 택시를 타고 출발하여 오는데, 그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십 년 택시 운전을 했는데 이런 손님 처음 만났다”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필자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그 분에게 말씀드렸다. “견인 비용 팔만 원 중 오만 원은 제가 드릴게요. 저를 태우러 오셨다가 어려움 당하셨는데 제가 많이 미안합니다.” 마

음 같아서 그 견인 비용 팔만 원을 전부 다 부담해 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요즘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신용카드 이외에 수중에 현금이 없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어난 상황을 짧게 이야기하고는 집 앞에 도착하기 삼 분 전에 전화하면 현금 오만 원을 가지고 좀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가까이 오면서, 필자가 섬기는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제야, 그 기사 분에게 여가 ‘정릉교회 목사’라고 신분을 밝혔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 손해가 많으시다. 많이 송구하다”고 재차 말씀드리니, “아니, 제 잘못이지요!” 하셨다.

집 앞에 도착해서 견인비 오만 원을 현금으로 드렸다. “목사님 돈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마워하셨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기사 분을 축복해드렸다. 논설보다는,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인 목사의 삶의 한 단상(斷想)을 나눈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은호

서울 정릉교회 담임목사이다. 한국교회 최전성기인 1980년대에 신학에 입문하여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신학하며, 목회하고 있는 예장통합 목사이다. 김동호 목사, 오대식 목사와 높은뜻송의교회를 공동 개척하여 팀 목회를 했으며, 2004년도부터 78년 역사를 가진 정릉교회 제5대 목사로 부임하여 목회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와 재난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지금 한국 사회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지능정보 사회의 급진전 속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의 시대를 맞았다. 기술의 변혁만으로도 사회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는데 재난의 시대가 겹쳐 실로 힘든 고통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공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많은 분야에서 ‘하이브리드’(hybrid) 하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추세로 설명한다. 동시에 그 결과로서 생산은 유연해지고 커지겠지만,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심각한 실업, 정치사회적 불안, 환경 문제와 자연 재해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능정보사회가 깊어지면서 ‘에코 챔버’(Echo Chamber)*와 ‘필터 버블’(Filter Bubble)** 효과와도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무시해 버리는 폐쇄적 인식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상황, 진단과 확인 등의 방역 과정에서 개인 정보와 인권에 대한 침해,

자유와 위축, 실업과 양극화 등의 문제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는 시대적 전환기에서 실업과 양극화, 개인의 보호와 자유의 위축 등과 같은 새로운 갈등 상황을 배태하였고, 자기 확증이나 폐쇄적 인식 경향으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소통의 단절과 상대 진영의 의견에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전환기적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정치 사회적 갈등’의 증폭이다. 이는 자칫 사회적 분열을 극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갈등의 해결은 우리 시대에 시민이 행동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물론 시민의 행동에 전제가 되는 시민성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논의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개인의 사적 자율성과 권리로서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요청하지만, 공동체에 대해 ‘부담이 없는 자아’를 전제한다.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적 시민성’은 개인을 공동체에 ‘부담을 지닌 자아’로 이해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참여를 촉구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은 우리의 신념이 사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전제하고 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비판적 시민성을 강조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회에 대한 주류적 사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

* ‘에코 챔버’(Echo Chamber) 효과는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같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서로 돌고 돌리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일종의 확증편향이다.

** ‘필터 버블’(Filter Bubble) 효과는 개인 검색 결과물의 하나로 웹사이트 알고리즘이 선별적으로 어느 정보를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지 추측하여 자기만의 문화적, 이념적 거품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다.

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해 유동적이고 다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각한다.

여기서 개인 시민이 어떤 인식을 지니는가는 그의 실천 행동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이에 따라 사회 문제와 갈등의 해결 방식이나 극단적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다양한 정파에 대한 선호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선호는 인간이 만드는 구체적 실천 행동이란 점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인정이나 이웃사랑과 섬김이라는 교회 정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이나 이해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재난지원금의 지급이나 기본 소득 등의 논의과정에서도 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지능정보사회와 재난의 시대라는 전환기적 시대의 한복판에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관련하여 우리 생각에 기초가 되어야 할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바"(롬:13-1)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하나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실천인으로서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편이 아닌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11장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마 11:2-6)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와 교훈에서도 명백하다. 예수님은 현실 정치의 행동적 선택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믿음과 구원 그리고 복음을 말씀하셨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보낼 것"(마 22:21)을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는 행동이나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월적 성찰'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정치사회에서 나타나는 '자기 선호적 폐쇄적 인식' 경향으로부터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따르면 이는 우리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驕慢)은 인간 본래의 특성이어서 우리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판단의 표준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순결에 비하면 그 자체가 죄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아마도 마음의 고백과 성찰은 이러한 주체성 회복의 전단계(前段階)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선호하는 집단에 대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내 집단은 상대 집단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는가? 내 집단은 상대 집단에 대해 무엇을 얻으려 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은 참되고 선한가? 이러한 질문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빛, 光)를 두려워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어찌면 화평(和平, 마 5:9)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한국 사회와 기독교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며 현실 사회에서도 고통 속에 내재해 있는 부정의 긍정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1990-현재) 겸 부설 학교진흥원장이자 서울대 사회교육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박사(Ph.D)에서 공부했다. 前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한국사회과교육학회장, 한국교육인류학회장, 한국경제교육학회장을 역임했다. 의림교회 집사이다.

‘코로나 19’ 시대에 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 19’ 시대에 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며, 광화문에서의 집회 금지 명령도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대면 예배 금지나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수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종교적 자유 또는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서 바람직한 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서부터 출발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는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과 이웃 사랑(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기본원리는 오늘날 세속법 질서에도 불완전하게나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하나님 사랑의 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 금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속법에서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권력분립의 원리나 공화주의 원리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이웃 사랑의 원리는 세속법에서 다른 사람의 존엄

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권 존중의 원리로 연결된다. 헌법 질서에서 권력분립 또는 공화주의 원리는 기본권 존중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성경적 질서와 일맥상통한다. ‘코로나 19’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법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이처럼 세속법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원리와 이웃 사랑의 원리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다양한 감염병 예방 조치는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의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병 예방 조치가 만약 다른 목적(예를 들어 종교적인 탄압이나 정치적인 탄압)으로 남용된다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게 부당한 권력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 사랑의 원리(우상숭배 금지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속법(특히 헌법)에서는 이러한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법리들을 두고 있다. 첫째,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그 목적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둘째, 기본권의 경합이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생명권 또는 건강권이라는 기본권과 종교적 자유 또는 정치적 자유라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게 될 경우, 양 기본권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이들 사이에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대면 예배 금지나 집회 금지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들이 이러한 과잉금지원칙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서로 다른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적절하게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19’의 특성, 즉 밀집한 곳에서 비말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감염병 예방 조치의 정당성을 기본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면 자유의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감염병 예방 조치들은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남용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를 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깨어서 법 집행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때로는 법 집행에 협조를, 때로는 법 집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적절히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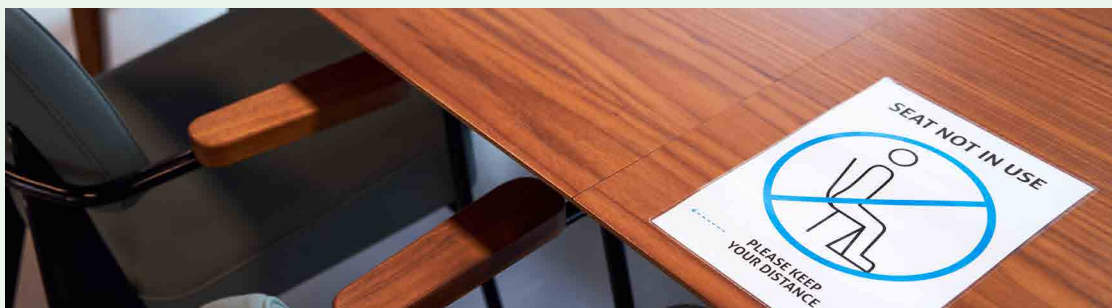


 글쓴이 김대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서울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행정법, Ph.D)에서 공부했고, 법무법인 소명 소속 변호사와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공공조달법과 민간투자법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코로나에 감염된 한국 교회,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 한국 교회는 한국 근현대의 격랑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한해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정교분리적 입장과 보수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주권 강탈과 식민지 시대, 해방과 분단, 전쟁과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와 사회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중추 세력으로, 때로는 친일과 부일의 핵심적 동조자로, 때로는 근대화와 민주화의 주도 세력으로, 때로는 독재와 비민주 세력의 맹목적 지지 세력으로, 때로는 진보와 성장의 견인차로, 때로는 그 길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말이다. 이처럼, 한국 교회가 한국 근현대사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민족과 영육의 세월을 함께 보낸 결과, 찬란한 성취의 기억과 극복해야 할 지난한 과제를 역사적 유산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서

한국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이 부각됨으로써, 한국 교회에서 또 한 번의 암흑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순식간에 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 19’ 때문에 세계가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졌고,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직장문화, 작업환경, 대인관계 등에 상상 밖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때에, 교회 안에서 집단감염자가 발생하여, 한국 교회 전체가 사회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으로 급부상했다. 결국,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한국 교회는 순간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 주일 예배 중심으로 진행되던 신앙생활이 벽에 부딪치자, 교회마다 어떻게 예배, 교제, 교육을 감당할지 몰라 크게 당황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의 교단 지도자들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한기총과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하던 반정부 집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국 교회

를 향한 사회적 비난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교회 내부의 갈등도 극에 달했다. 지금도 어렵지만, 교회의 내일은 더욱 암담해 보인다.

흔히, 한국 교회의 주된 신앙적 흐름을 학자들은 ‘복음주의’라고 명명한다. 이 용어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복음주의 연구자인 데이비드 베빙턴(David W. Bebbington)에 따르면, 복음주의는 성경, 회심, 십자가, 복음전도를 강조한다. 역사적으로, 복음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영미권에서 크게 발흥했으며, 그런 영향 하에서 한국 교회도 복음주의가 주류를 형성했다. 흔히, 복음주의는 현세보다 내세, 구조보다 개인, 육체보다 영혼, 사회보다 교회에 방점을 두었으나, 시대와 지역의 사회적·정치적 현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며 참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영미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핵심적 교훈과 각 시대의 진보적 정신 간의 창조적 대화를 추구하면서, 노예제도, 여성참정권, 빈민문제, 전쟁과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발언하고 행동했다. 한국 교회의 경우도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교회의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그룹, 반공주의, 친미주의, 친자본주의를 성경적 가치와 동일시하면서 정치 참여를 지지하는 그룹, 반면, 신학적 보수주의를 견지하되 진보적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그룹이 공존해 왔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내에서 ‘복음주의=근본주의=보수주의’란 공식이 통용되고 있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과 냉혹한 사회적 비판의 핵심은 한국 교회 일부에서 포착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실천,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에 대한 심각

한 오해와 편견이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역사 속에 남긴 명(明)과 암(暗) 중에서 명은 점점 약화되고 암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즉, 과거에 한국 교회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종교의 원초적 기능에서 벗어나,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공적 가치를 추구·실천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교회 시대의 그들로 추락한 때는 개인적 이익과 사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적 가치를 간과하거나 포기했을 때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 19’와 ‘전광훈 현상’ 속에 드러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도 만난 이웃과 사회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 주변을 세심히 살핀 후,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눅10:37)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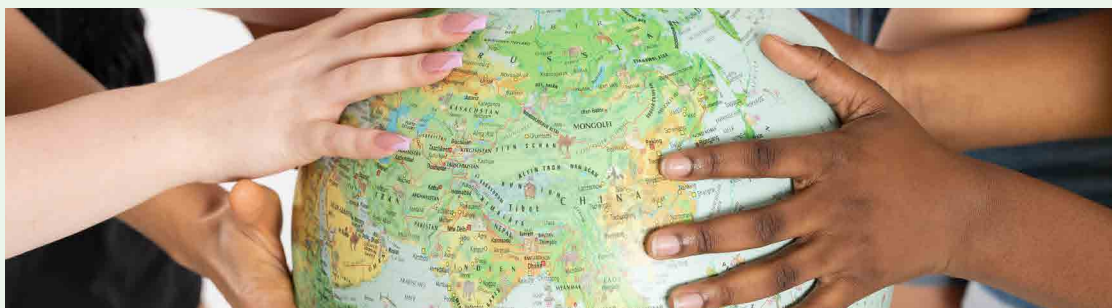


글쓴이 백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회사 교수이며 백항나무교회 담임목사다. 서울대 종교학과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S. T. M.)에서 공부했고, 미국 드류대학교에서 미국종교사 전공으로 박사학위(Ph.D. 교회사)를 받았다. 저서로 <복음주의 리포트>, <교회사의 숲>,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 등이 있다.

신자와 불신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공존하는 사회

황영철 (수원 성의 교회 담임목사)



그리스도인 역시 사회 속에서 일원으로 존재하므로 교회 밖에서의 삶, 곧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기도 하다. 만약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가정하면, 그 영역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만약 마귀가 통치한다면 그럼 마귀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물론 악의 기원과 개인의 책임 혹은 자유의지라는 난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일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신자를 세상에 보내어 사회의 어느 부분에서 한몫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사회가 굴러가게 하는 일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의 일이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힘이나 결정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며,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사회에, 자기가 원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 모

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사람의 도덕적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주제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 점에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르지 않다. 그래도 신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물론 크게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주제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서 하게 하시는 일을 그들이 더 잘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존중해야 한다. 그가 위장자나 관리라면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 이와 동일한 원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신자는 그들이 그 일을 잘하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 물론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해야

하지만, 저항을 하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규칙으로 알고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의 예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앗수르이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인데, 두 나라 모두 고대의 제국이였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동방에서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유다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결사 항쟁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뜻을 전하셨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렘 27:5-8). 유대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방의 왕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내 말을 따르라”고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므로 거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상한 종교적 자신감에 빠진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하게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어떻게 되었는가? 크게 두들겨 맞지 않았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당한 일이 대표적이다.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렘 39:6-7).

그뿐만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다음으로 페르시아를 일으켜 그 왕에게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망했다. 성경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사 44:28).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자신의 목자라, 심지어 기쁨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다.(사 45:1). 이스라엘에서 기쁨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고 성전도 회복하게 한 인물이다.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시며, 큰 혜택을 베풀게도 하신다. 과연 하나님은 홀로 천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시민의 위치에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신앙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의 유지를 위해 당시 뜻대로 지위를 맡기신 사람들의 역할 역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삼일교회 송태근 담임목사

지난 2020년 10월 21일(수) 서울 청파동에 소재한 삼일교회(장로교 합동)에서 송태근 담임목사를 만났다. 삼일교회는 오래전부터 청년 교인의 비율이 높고, 성도를 말씀의 기초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 온 교회였다. 최근 한국 교회는 예상치 못한 범사회적 재난 속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직면해 있다.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일시 & 장소 2020년 10월 21일(수), 서울 삼일교회
인터뷰어 박동열 (서울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장)
정리 & 사진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동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코로나 19'로 상징되는 현재의 재난 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송태근 교회 공동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일교회는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한 단계로 진입하면서, 적극 대처를 위한 여러 준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조치 한 주 전 토요일(2월 23일), 장로님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예배의 비대면 전환을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교회 행정도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증감의 추이와 정책에 따라 협조하고, 방역 조치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하였지요.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도표화하고, 즉시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전 교인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확진자 주변 성도님들에게는 '코로나 19' 검사 요청을 드렸었고요. 서울시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이 인상적이었는지 그에 대한 고마움을 전화로 표해 오기도 했습니다.

박동열 현재와 같은 재난의 국면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송태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보통 '왜'(why)라는 질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게 되

고, 재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누군가를 정죄하고 표적 삼는 일도 발생하죠. 이 '코로나 19' 사태에서는, 처음 신천지가, 다음으로는 동성애자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도행전 11장의 초대교회 대처방식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당시 세계적으로 큰 기근이 닥쳤었는데, 그때 사도들은 누구 때문에 재난이 왔나 분석하거나, 왜 발생했나 하는 질문 대신 먼저 '무엇'(what)을 생각했습니다. 즉 긴박한 시간에 즉시 행동에 옮긴 것이죠. 사도들은 곧바로 당시 막 개척 교회들에게 세계적 재난을 위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결과, 이방의 초대교회들은 우선 구제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경멸의 태도로 바라보았는데요. 콘크리트 장벽처럼 막혀있던 그들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결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팬데믹 상황도 그리스도인들이 '왜'(why)라는 질문보다는, 이 환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 팬데믹의 의미를 소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성도들과 많은 청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고민 끝에, 공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노숙인분들에게 식사 등을 지원하는 보급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삼일교회는 컵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 거의 300명 가까운 분들이 새벽에 찾아옵니다. 지난주부터는 정부 지침과 함께 예배당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지요. 소예배실에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말씀을 간단히 읽고, 담당 목사님이 묵상한 것을 나누고 상담도 하면서 이런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동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K방역'이라 해서, 대면 예배 등을 국가가 제약하는 것에 대해 종교 탄압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송태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근심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일교회는 과거에 큰 풍파를 겪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사회의 조롱거리나 가십거리가 되는 데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제약이나 무거운 권고가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찌 되었든 첫 번째 사수할 가치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자문해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경배하는 것이겠지만, 진짜 경배는 무엇인가 물었을 때, 성경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마다한 채로 그저 종교성에 근거한 예배 형식만 고집하고 강조하면 그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여타 종교의 또 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박동열 목사님은 최근 주일예배 때, 지금 우리의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의 국면은 '이기적 자아에서 이타적 자아로,' 더 나아가 '공공적 자아로의 인식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간단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태근 어느 날, 요엘서 2장 17절의 "너희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하필 "낭실과 제단인가" 생각을 했죠. 그곳은 제사장들이 예배 준비를 위한 공간이었는데, 에스겔서에는 거기가 우상숭배가 행해진 곳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요엘서는 개개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

동체의 회개를 철저히 촉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웃에 대해 얼마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을 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돌이켜보면 너무 자기들끼리만의 리그에 도취가 되어 많은 교회가 유관선 역할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보면 지상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지요. 분명한 적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것을 향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간 허락하신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실 분명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는 교회가 ‘안’이 아닌, ‘밖’으로 쏟아내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자기 몸집은 더 작게 만들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역설적 선물은 지금 이 시기만큼 우리가 교회론의 본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인가?” 이 본질적 고민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게 된 기회를 제대로 선용한다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못지않은 제2의 종교개혁으로 가는 길목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 19’ 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 “이제 끝이다, 위기다.” 하는 염려와 질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교회의 거품은 빠지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허영과 허세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재난의 시련을 맞닥뜨린 순간에 우리 모두 ‘이기적 자아’를 버리고, ‘이타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는 일 즉, 공황 사역에 더 초점을 맞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공공적 자아’로 인식하는 실천 외에는 그간 교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달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열 목사님 말씀하신 ‘공공적 자아’라는 것이 이번 호 <신앙과 삶>의 주제인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연결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난의 국면에서 ‘공공적 자아’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태근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기도 뜨겁고 열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근거를 창세기 12장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말로는 ‘하라크’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영어로 ‘go’라고 번역하지 않고, ‘walk’(걸으라)로 번역합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걷는 것이예요. 이와 더불어 그건 일상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디 특정한 장소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을 토대로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청년들의 일터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 내는가가 선교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이기도 쉽지 않을 시대가 계속된다면 온라인 상에서 스스로 어떻게 체질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이 선교에 관한 창세기 12장 1절 본문의 진짜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박동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일교회에는 청년들이 많고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많은 경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삼일교회 청년 사역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송태근 삼일교회는 전부터 청년이 많았지만, 성경 거처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 약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제가 삼일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강해설교를 하는데요.

반응이 약간 호의적이지 않고 힘들어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대표 간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뇌수술 당하고 있는 기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은 현상인 것 같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었죠. 청년들과 함께 말씀 공부만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든 어떤 글을 읽는데, 지금이야말로 ‘슈브’의 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슈브’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 하시는 언약적 관점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 즉 ‘슈브’의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삼위 하나님께로의 집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당연히 성경을 봐야지요. 모든 시대에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현재도 청년들에게 어떤 목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들을 성장시켜야 하겠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목회 방향입니다. 대신 조금 답답할 정도로 성경만을 강조합니다.

박동열 저도 캠퍼스에서 보면 요즘 학생들에게는 취업,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느끼고요. 이 청년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보여줄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이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려면 교회와 기성세대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송태근 저는 일 년 중 여름 두 달, 겨울 두 달 동안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나갑니다. 주일에 출발했다가 금요일에 들어와서 주일 사역 마치고 바로 다음 날 가기도 하고요. 잦은 빈도로 다른 나라를 오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말 똑똑해요. 이야기를 나누면 발상도 신선하고 열정으로 무장된 패기도 있고요. 이 청년들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서 세계 곳곳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진 세계관이 뿌러지겠죠. 그 지역도 청년들이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좋아질 것이고요. 저는 이전에 노량진에서 19년을 공무원 공부하는 청년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청년들이지만, 그곳에서 본의 아니게 오래 있게 되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 년 이상은 시험 준비하지 마라.” 이 규칙으로 삼 년 지나면 무조건 취직을 종용했어요. 아쉽게 1~2점이 모자라서 시험에 낙방하면 포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친구들이 노량진 폐인이라고 자조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그 좌절의 때를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계 여러 곳에 가서 각자 가진 장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려면, 혹시라도 교회와 기성 세대들이 이념처럼 지닌 민족주의 같은 것을 먼저 허물어버리고 먼저 의식의 전환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박동열 마지막으로, ‘코로나 블루’(코로나 19로 야기된 불안증 또는 우울증)를 겪으며 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주십시오.

송태근 얼마 전 94세이셨던 의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원주라는 할머니님이신데 부모님들은 독립운동가였고요, 80세에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 요양 병원에 들어가서 의료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딱 세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힘내, 가을이야, 사랑해”.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삶은 정작 피곤할지 몰라도, 오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새롭고 설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설레고 기대가 되지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하루가 새롭고 설레입니다. **FAITH & LIFE**

‘암’의 자리에서 ‘삼’의 자리로

정희영 (총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나와 ‘기독교학술동역회’와의 인연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나와 함께 총신대 유아교육과에 재직했던 동료 고(故) 김동춘 교수가, 자신의 전공을 기독교적으로 조명하여 연구하고 싶어하는 대학 후배인 성균관대 교수에게 나를 소개하였다. 김동춘 교수는 자기보다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있다고 하면서 나를 소개한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된 성균관대 교수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유아교육 관련 교수와 현장 교육자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서적을 읽기 시작하였고, 또한 신학 분야의 교수들을 모셔다가 특강을 들으며 자신들의 전공과 기독교 진리를 연결 지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함께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알버트 그린(Albert Greene)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를 번역하였다.

이 모임에서 철학과 관련된 특강을 들으며 웨슬리(Wesley Wentworth) 선생님을 소개받았고 웨슬리 선생님을 통해 기독교학문연구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때가 1995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남영동의 사무실에서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

거나 자신의 학문과 ‘기독교 세계관’과의 통합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야의 교수들이 교육학 분과라는 이름 아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열매의 하나로 한 장씩 읽고 발표하였던 에드린(Richard Edlin)의 <기독교 교육의 기초>(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을 번역하였다. 신학과 학문에 관련된 책을 읽던 이 월례 모임은 매우 오랫동안 꾸준히 모였으나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그만두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기독교학술동역회’ 산하 ‘기독교학문학회’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는 2014년 10월 31일에 중국의 칭화대학(淸華大學)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사건이다. 중국의 칭화대학 연구소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면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기독교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고, 기독교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기독교 학문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다. 따라서 기독교 학문을 연구하면서 논문집을 발간하는 학회로 기독교학문학회를 눈여겨보면서 우리와의 ‘업무협약’을 맺기를 원했던 것이다. ‘업무협약’을 맺기 위

해 손봉호 이사장, 김승욱 교수(당시 실행위원장), 조성표 교수(당시 기독교세계관연구소장), 그리고 몇몇 관련된 분들과 중국의 칭화대학을 방문하였다. 당시 나는 기독교학문학회 회장으로 참석하였다. 칭화대학 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놀랐던 점은 중국의 학자들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기독교 학문에 주목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로 19세기 말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의 내한과 그들의 근대식 교육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근대화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이 있으나 기독교와 경제에 관한 글들은 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학자들은 자신의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기독교를 생각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물론 중국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신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의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 놀란 점은 칭화대학의 연구소 책장에 <조선실록>이 꽂혀있다는 것이었다. 무엇을 연구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칭화대학 연구소의 연구가 매우 폭넓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모든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아래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독교 학자들의 연구가 자신의 전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편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모든 학문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보다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나는 내 전공도 제대로 깊이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도 함께 들었다.

이제 한 학기만 있으면 40년 가까운 긴 여정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의 인연도 정리할까 생각 중이다. 여러 가지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마음 속 깊이 남는 아쉬운 점은 기독교 학자들의 학문 연구가 '삶'에 그치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수상록>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Montaigne)가 '삶'보다는 '삶'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나누는 나의 삶의 저편의 이야기에 그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어쩌면 '삶'의 자리에도 제대로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있다. 1980년대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었고, 이제는 기독교학문학회에서 1년에 두 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독교 학자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논문들이 발표되며 학술논문지 <신앙과 학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발표되고 있다. 그동안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발전에 기여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역할에 감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과 학문에 대한 이원론에서 벗어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학문 연구가 '삶'을 위한 연구에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 FAITH & LIFE



✍ 글쓴이 정희영

충신대 유아교육과 교수이다. 전공은 기독교교육 및 유아교육이고 기독교 유아교육을 연구하였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유아교육론>(교육과학사, 2000),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근, 현대 교육사조>(그리심, 2004) 외 다수가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후회없이 사랑하자

조예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던 주일이었다. 당시 나는 해군 장교로 군 생활하고 있었고, 주일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들러 예배를 드렸다. 농촌에 위치한 작은 교회가 보통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 주일이면 나도, 어머니도 늘 정신없이 예배를 준비해야만 했다. 워낙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면 어머니는 자주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셨다. 그날도 어머니는 요즘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평소에도 자주 듣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못했다.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나서는데 어머니가 마당까지 나오셔서 배웅해주셨다.

평소라면 별생각 없이 부대로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웬지 모르게 배웅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스물일곱이나 먹은 다 큰 아들이 엄마를 안아드린다는 게 낯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마음을 접었다. 왜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은 채 인사만 드리고, 부대를 향해 차를 몰았다. 다음에 혹시 또다시 어머니를 안아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꼭 한번 안아드려야겠다는 생각만을 간직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부대에 복귀한 다음 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길, 생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를 건 사람은 구조대원이었고 내용은 간단했다. 어머니가 직장 주차장에서 쓰러지신 채로 발견되었으며,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삼십 초도 되지 않던 전화의 내용이 청천벽력이 되어 내 가슴 한복판에 떨어졌다. 부대와 병원은 약 두 시간 반 정도 거리였다. 내가 어떻게 운전해서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저 왜 어제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나는 사랑할 수 있었을 때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이 산적해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머니의 생명을 이 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연장해주셨다. 어쩌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모두 어머니에게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하나님이 왜 어머니에게 이런 질환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어머니가 과연 다시 건강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실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 때문일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느끼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나는 그리스도인 청년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자세 역시 후회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런 죄도, 죽을 이유조차 없었던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자신을 배반하고 모욕하게 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심지어 군중들이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는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조차 무한한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주셨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후회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근래에 들어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이 봉착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화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한국 교회로 향해 쏟아졌다.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꺼내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어르

신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네 경로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말도 걸지 않는 왕따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에 따라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혐오와 몰상식의 상징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권 관련 논의의 중요성이 성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넘어버릴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분명하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외롭고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사랑하는 것이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알려주신 삶의 방식이다. 예수께서 끝까지 그리고 후회 없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원망과 두려움을 토로하기에 앞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주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자!” **FAITH & LIFE**



✍ 글쓴이 소개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서울대 학부시절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학생대표를 역임했다. 학부 때 선교단체(IVF)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는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칠정교회(예장통합) 청년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짜릿함

윤수아 (Impact Walkers 사원)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늘 새로운 뉴스 거리를 찾아다니고, 더 새로운 '인싸'가 되는 법을 연구한다.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무료한 일상을 극복 해내는 자극이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짜릿함의 유효기간은 짧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반복되는 일상에서 더욱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며 살아간다. 성공을 추구하며 얻는 즐거움도 마찬가지이다. 성공이 이 세상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힌 듯이 그것을 향해 달리지만, 이는 삶을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결국 나를 짓누르는 대가로 얻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인싸력'이나 '성공'이 주는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의 짜릿함을 예비해놓으셨다.

나 역시 모태신앙이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의 세상의 짜릿함을 맹목적으로 좇으며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삶을 추구했었다. 그 누군가는 나 자신, 부모님,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세상과 같다면, 이 세상 모든 평범한 것들과 약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랑'이라는 짐 대신 아버지를 따름으로 얻는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 자유는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성공을 열망하는 삶에서의 회복을 명하심으로 나의 꿈을 되사신 그분 안에서만 발견되는 즐거움 말이다.

그 목적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분의 꿈 안에는 사랑이 있고, 연대가 있으며, 다른 이를 향한 긍휼이 있다. 그분이 사랑, 연대, 긍휼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나를 지으신 이유 역시 분명하다. 필자는 현재 다른 이를 향한 재물, 재능과 삶 더 나아가 마음의 빈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부문화의 확산과 정착이다. 나의 업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인색해서 이 문화의 정착이 늦어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이례적인 고속 성장과 그에 따른 분주함이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선한 일을 할 수는 있고, 기부문화가 그리스도인만의 것은 아니지만, 먼저 그 긍휼의 주인되시는 분을 아는 자들이 나눔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연대의 용기가 부족하고, 사랑이 고갈된 시대' 라고.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갖게 된 모습일리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부정하고,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여 살아간다면 "동무를 불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마11:16-17) 모습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물론, 이 시대의 공허 없음은 단순히 기부문화의 정착으로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일의 중심과 그 결론에 있어야 할 것은 복음뿐이다.

기부와 나눔에는 당연한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그 완벽한 안식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보이셨다. 당신의 피조물들의 안식이 없이는 그분 자신의 안식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다면, 제자 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을 위해 지면을 허락받았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청년'으로서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것은 삶을 뒤바꾸는 깨달음이다. 그러나 다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이 역시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지음 받은 자임을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특히 연약하고 소외당하여 그 목적을 알아낼 기회조차 얻기 희박한 자들의 삶의 목적 말이다. 나의 영, 혼, 육과 꿈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영, 혼, 육과 꿈 역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창조물 중 어느 하나라도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일 리 없다. 아버지께서는 그분과 마음을 공유한 자들이 이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기시는 사역

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결국, 나의 회복은 다른 이의 회복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한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과 다른 이도 그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짜릿함'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제자의 길을 완주하기를 기대하신다. 나는 아직 그 길을 맛만 보았을 뿐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당신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삶의 지침으로 나의 길을 만들어 가셨던 아버지께서 준비해놓으신 그 선한 길을 기대함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 청소년들 그리고 난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세상,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삶을 사는 데에 동참하는 일을 꿈꾸고 있다.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완벽한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언제이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것을 채우느라 분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수아

호주 멜번에 위치한 모나쉬(Monash)대학에서 '인간행동학'(Human Behaviour)을 전공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존재하는 모금 컨설팅 회사 '임팩트 워커스'(Impact Walkers)에서 비영리기구(NPO)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 청년부 여디디야에서 캠퍼스 담당 리더로 섬기고 있다.

천국 국기를 달고 살아 보자!

김수진 (Leadership Advisory Firm 비서실 과장)

어린 시절 주변 어른들은 내가 사업가나 코미디언, 둘 중 하나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곤 했다. 반면 나의 학창 시절 꿈은 세계를 누비며 미소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어디스였다. 스튜어디스였던 숙모와 주변의 지인들은 성격과 재능을 봤을 때 잘 맞는 것 같다고 격려해 주셨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내게 직장에서 땅에서 한 발짝도 떨어질 수 없는 비서라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잘해서 빛이 날 수 있는 자리보다는 부족한 것을 우선 배워나가며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다.

친구들이 취업난으로 고생할 때, 회사를 골라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코 탁월한 인재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대담하게도 회사를 지원할 때, 미리 정한 조건에 맞추어서 지원했을 뿐이다. 그 조건은 현재 출석하며 섬기고 있는 한국외국어대교 대학교회의 주중 저녁 일곱 시 반, '다니엘 기도회'를 어려움 없이 지킬 수 있게 가까운 곳에 위치한 회사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기도회 시간을 맞추기에 지장을 받지 않는 자리(업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직 이 두 가지 조건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선 출퇴근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강남은 제외되었다. 직장에서 유망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야만 하는 자리도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높은 연봉과 미래를 보장해줄 기회의 직장과 자리에는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건방질 만큼 대담한 믿음의 결단을 받으셨다.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한 번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지난 육 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평탄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같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대단한 포부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세상 가치관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엄청난 도전들 앞에 힘겨워했고, 종종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곤 했다. 동료들과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상사에 대한 불평불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경건의 시간(Q. T.)과 저녁 기도회에 앉아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는 시간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매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그렇게 저녁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한 능력과 세상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 덕분에 직장에서 한번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한 분이 내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칭찬의 말을 전했다



다. “너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강한 것을 내가 봤어.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기에 저녁마다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같아. 아침에 나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너를 보며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 이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셨던 것 같다. 사람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하심으로 느껴졌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회사 가운데 그렇게 서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종종 평가하고, 때로는 남다른 기대도 있는 것 같다. 나의 힘과 열심만으로는 이 기대에 부응하거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능력이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내 힘으로 얻는 열심과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먼저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모든 것을 선물로, 열매 맺도록 하시는 삶의 공식을 알려주셨다.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보란 듯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하셨다.

최근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균형잡힌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싶다는 이유로 종종 삶의 현장, 즉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다. 하나

님은 당신이 심으신 세상의 자리에서 꽃피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곳임을 확신하게 하셨다. 직업은 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하셨다. 적당히 일 처리 하던 모습을 버리고 회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직장에서 비서 업무를 수행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상사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더 앞서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셨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근본적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주신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니 일하는 보람과 성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회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존중받으며 영향력을 키우게 하셨다. 대학에 입학 할 즈음,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었다. 내심 직업의 응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그 당시에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이 비전이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며 살 때,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자 행복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 끝까지 그 뜻을 이루며 멋지게 살아 내길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수진

스위스계 회사 (Leadership Advisory Firm)의 비서실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문학, 영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올해 6년 차이다.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교회 유학생 지역 팀장을 맡아 섬기고 있고, 3명의 재기발랄한 자매들과 함께 교회 여학사에서 살고 있다.

기술개발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김다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박사과정)

교회와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다. 나에게도 청소년 때부터 대학원 과정에 있는 지금까지 진로는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였다. 지금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고등학생 때의 나는 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였고,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과정에 가장 큰 개인적 동기는, 공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계기는 대학 재학 중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그리고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움이었다. 특히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단순히 영혼 구원의 영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닌, 경제, 정치, 과학, 예술 등 사회의 전 영역을 아우른다는 사실이 내겐 의미가 깊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이라는 용어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 미치며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부름받은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 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삶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 고민하며 살아 내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기쁨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

하여 나는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술 개발이 무엇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현재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하드웨어 시스템에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로봇공학 및 컴퓨터 공학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속도를 따라가며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학계 전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학 내부에서 신기술의 가치는 기존의 기술보다 더 효율적인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경제적이고 성능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연구자들에게 공학 연구의 당위성을 잊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다. 기술 개발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바는, 분야가 빠르게 발전해갈수록 정말 중요한 질문인 '무엇이 가치가 있고 유익한 기술'인지에 대한 대화는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의 의미와 뜻, 그리고 기술 개발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공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칭기기로서의 책임'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맡기시고 창조성을 주셔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피조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 기술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기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기에 기술 전문가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책임을 실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 개발자들은 맹목적인 효율성 추구를 뛰어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이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인지 치열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이웃을 섬기는 적극적인 사랑의 윤리가 기술 개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술이 어떻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에 사용될 수 있으며, 욕망의 충족을 넘어 사랑의 표현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천의 중

은 예로는 '적정 기술'(Appropriate Technology) 등을 들 수 있겠지만, 나는 더 넓고 다양한 영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공학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고 있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의 일부임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기술 발전이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내 삶을 드러서 탐구하며 살아내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고민이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 공학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답을 찾아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적용 가능한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실천되어가기를 기도하면서, 묵묵히 작은 것부터 배워나가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다빈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로봇공학 전공자로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신앙과 공학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서울대 대학원 기독교 세계관 독서모임 멤버이며 무전 온누리교회 청년이다.



기적은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 사랑이에요!

추태화 (안양대 신학과 기독교문화학 교수)



<미라클 프롬 헤븐>
Miracles from Heaven,
2016,
페트리시아 리건 감독

행복

한 단란한 가정이 있다. 아빠와 엄마는 믿음이 신실하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또한 등한히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딸 셋이 있는데 알콩달콩 우애가 좋다. 정말 화기에애하게 지낸다. 어느 주일날, 엄마는 교회에 갈 시간을 맞추느라 부산하다. 세 딸을 챙기느라 아래윗 층으로 뛰어다닌다.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있다. 엄마는 교회에 일하던 옷차림으로 갈 수 없다고 보챈다. 그러는 사이 아빠는 밖에서 소여물을 주고 있다. 엄마는 거기다 대고 역시 소리친다. 아빠는 투덜대면서 주일 예복으로 갈아입는다.

자, 이제 식구들은 교회로 달려간다. 다행히 늦지는 않았다. 손뼉치며 울동 하면서 찬송을 부르니 예배가 더 뜨겁게 느껴진다. 목사님은 진지함 속에 여유를 섞어가며 설교한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소품으로 예를 든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니 주님 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렇게 행복한 일

상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지만 못하다.

환난

그렇게 행복한 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아프다고 한다. 아이는 배를 움켜 쥐고 고통에 울기까지 한다. 엄마는 어쩔 줄 모르고 병원을 찾는다. 여러 검사를 통해 알아낸 것이 원인 불명. 무성의해 보이는 의료진을 타타하는 엄마. 누가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알겠는가. 그때부터 엄마는 백방으로 아픈 딸을 고치고자 미친 듯 뛰어다닌다. 아이의 고통은 더하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 나중에 밝혀진 병명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장폐색증.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코에 관을 삽입해야 했고, 회복은 해가지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없으니 왕따가 되기 일쑤다. 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니 외롭고 쓸쓸하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소외감을 느껴야하다니 삶은 냉혹해 보인다. 아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하고, 혼자 고통을 느껴야 한다. 점점 고통은 아이를 예민하게 만든다. 언니와 동생도 같이 심리적 혼란을 겪는다. 그토록 웃음꽃 피던 행복한 시절은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그들이 집안에 가득하다.

교회 사람들도 태도가 이상하다. 아이가 아픈 것이 무슨 죄라도 지어서 생긴 일처럼 바라본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부모가 몰래 죄를 지었거나 아이가 어떤 죄라도 지어 아픈 것처럼 수근거렸다. 참을 수



고난 속 기적

믿음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이는 언니와 나무에 오른다. 높이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바라봤으면 꿈꾸어 왔었다. 그동안 수백 번도 더 올라간 나무. 그날따라 왠지 언니의 꼬임이 달콤했다. 한발 한발 나무에 올라간다. 나뭇

없는 정죄였다. 아이가 아픈 것이 무슨 죄 때문이라는 소문은 정말 참을 수 없었다. 목사는 믿음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엄마는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자신의 무슨 숨긴 죄 때문일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서일까. 애가 왜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일까.

사랑의 사투

아이도 엄마도 심한 우울 상태에 빠진다. 엄마는 아빠와 신경전을 벌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기도 한다. 아,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찌하려고 내 딸을 이렇게 아프게 놔두는 것일까! 그런 심정이다. 집 앞에 오랫동안 함께 해온 나무를 보고 혼자 묻는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희망이 있다고 믿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소아과 전문의를 소개 받는다. 세계적인 소아과 의사 누코 박사. 얼마나 예약이 밀렸는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픈 자식을 앞에 둔 부모에게 거리가 문제일까. 자식을 고치고자 하는 엄마의 사랑은 처절하다. 엄마는 결단한다. 그가 있는 병원으로 간다. 딸을 데리고 무작정. 누코 박사의 병원은 비행기로 가야 하는 먼 거리. 엄마는 뼈뺀 여비를 마련하여 딸을 데리고 간다. 의사는 소문대로 소아과 전문의로서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대해주고 진료도 수술도 잘 끝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치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고통 역시 아이와 식구들 몫으로 남아있다.

가지에 얹아 몸을 움직이던 중 고목 가운데 텅 빈 속으로 떨어진다. 거꾸로 떨어진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런데... 구급차가 오고 구급대원들이 특수장비를 동원해 아이를 구출한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3시간을 그렇게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 구출은 성공적이었으나 아이는 반응이 없었다. 부모는 기도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었다. 믿음의 부모였으니 기도 외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가 뛰어노는데 보름달만한 배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모두 놀랐다. 어떻게 갑자기 그 아프던 애가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가. 아이는 혼수상태에 있을 때 뭔가 체험했다고 말한다. 아이는 분명히 기억했다. “그 분이 나를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때가 되면 다들 알게 될 거예요.” 아이의 회복으로 엄마는 깨닫는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뤄진 일임을. 기적은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 숨겨놓으신 사랑의 씨앗으로 탄생한다고. **FAITH & LIFE**



글쓴이 추대화

안양대 신학과 기독교문화학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화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감적 감수성으로 이웃에 다가서는 작가들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3세기에 이탈리아를 강타한 전염병으로 로마에서는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로마 제국의 기반은 크게 약화되었지만,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대단히 개선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Dionysius, bishop of Alexandria)의 글은 그 이유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준다.

“대부분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였으며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했다. 그들은 병자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과 함께 이생을 고요하게, 행복하게 떠난다. 그들은 질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감염되었고, 이웃들의 병을 끌어내고 그들의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자신에게 옮기고 대신 죽었다.”

전염병은 우리 자신의 필멸성과 연약함에 대한 생각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반문화적이고 반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한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성행하자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현실에서도 오히려 감염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핀 것이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가 밝혔듯이 120만 명에 불과하던 그리스도인이 무려 6백만으로 증가하는 기록을 보였다. 이 사실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어떠해야 할지 실마리를 제

공해준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19’의 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였는지는 곧 판가름 날 것이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팬데믹 상황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술가들도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일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얼마 전 개최한 기독교 작가들의 모임 ‘아트미션’의 <기억하는 사람들>이란 전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마 25:40)의 말씀에 기대어 우리 사회의 외롭고 힘없는 사람들과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화폭에 담았다.(김현희, 그림1)

김현희는 주위의 나무 폐품과 철사로 십자가 이미지를 만들어 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정해숙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담아 실어냈고, 최진희는 <광야에 서다>를 우리 작품을 통



김현희, cross, 150×60cm, mixed media, 2020

해 좌초되고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담았다. 조혜경의
<터치>는 병든
채 버려진 또
다른 상처입은
여인 시엔에게
위로와 사랑의
메신저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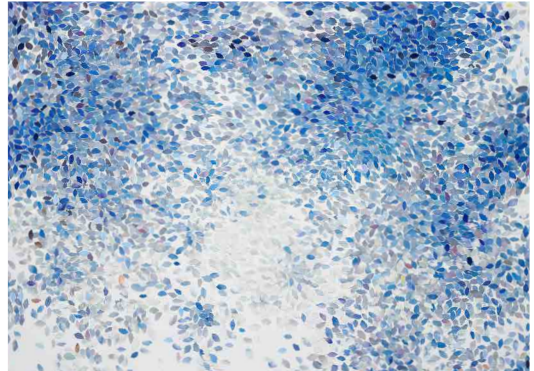


조혜경, 72.9x72.9cm, 캔버스위에 혼합재료, 콜라주, 2020

자처한 반 고흐의 삶을 통해 지금도 하늘의 은총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역사적 상흔을 지닌 유적지를 긍휼의 마음으로 그려 온 김미옥은 미안마의 빈민촌 아이들과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 주민들에 각각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림을 선보였다.(조혜경, 그림2)

그런가 하면 폐지를 이용해 꽃의 이미지를 만들어 죽은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해온 송지연은 <마라나타>를 통해 지금의 아픔과 슬픔이 끝나고 소망의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성은 마른 잎사귀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안혜성의 <사막>은 지금의 고난의 날들이 종국에는 보석같은 삶을 가져다주리라는 믿음을, 서자현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품을, 장지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벗으로 삼는 공동체를 암시하는 추상 작품을 각각 출품하였다. 이 작가들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작가들이 이웃을 대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송지연, 그림 3)

기독교 작가들이 공감적 감수성을 갖고 이웃에 다가서는 작품을 선보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빈민목회'로 널리 알려진 이연호 목사(1919-1999)가 6.25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장애인들, 지아비를 잃은 여인, 부랑아들을 수채와 펜으로 그려 시대의 아



송지연, 마라나타, 75×94cm, 캔버스위에 하늘사진, 모자이크, 2020

픔을 표현한 것이나 서민 화가 박수근(1914-1965)이 실직자들과 미화원들, 노상의 사람들, 과일 파는 여인들을 그려 사회의 응달진 부분을 강조한 것은 그들의 삶의 애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신 예수님의 사인이 아닐까.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던 사람들을 시대를 함께 사는 나의 이웃으로 끌어안는 시각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상실감을 겪는 시대에 기독교의 정신을 발휘하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값진 경험이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공감적 감수성을 나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늘어난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품었던 의문도 얼마간은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좋은 사회 참여와 나쁜 사회 참여

편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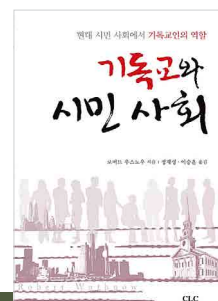
시민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버트 우스노우(Robert Wuthnow, 1946-)는 프린스턴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다. 70세가 훌쩍 넘었지만 강의와 30여권의 책을 통해 기독교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다문화 상황 속에 들어간 오늘의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깨우쳐준다.

교회는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사회 속에 진리와 윤리를 되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자는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이 필수조건임을 주장한다.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의 정신에 기초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통해 시민 사회의 공적 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사회를 정치화하는 대신 기독교적 봉사와 섬김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날 시민 사회는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신앙인들은 힘센 정부와 개방적인 언론과 진보적인 대학의 동맹이 종교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주요 공공 이슈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봐야 소용없다고 느껴 스스로 물러선다고 했다. 그 결과 세속화가 심화된다. 교회의 쇠퇴보다는 영향력 약화 때문이다. 물론 교회는 '사회 자본 양성'이나 '사회문제'의 토론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와 사회, 특히 낙태, 포르노, 동성애, 학교 교육, 마약 문제에서 그 영향력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데 있다. 법과 정치가 종교적 헌신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정치와 사회 기구들은 계시나 성경 등 종교적 규범을 공공 정책에 대한 주

장의 정당한 기준으로 여기지 않고 합리성, 과학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이에 대응하여 1970년대 중반에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인 재탄생'이 일어났다. 하지만 시민 사회에의 참여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다. 그 선함 여부는 참여 방법, 즉 그것이 "시민적이며, 신뢰와 시민의 책임감"에 기초했는지에 달려있다.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오늘의 사회는 신앙인들의 행동을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정치적 의제를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득하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들은 법과 행정 절차만 따져 그것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집단을 배척한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신념을 전체에 강요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심지어 때때로 비상식적이어서 불신을 자초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흉은 '문화 전쟁'이다. 시민사회가 전통주의와 진보주의의 경쟁적인 세계관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시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문화 전쟁'을 부추기거나 선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저자는 '문화 전쟁'을 넘어서는 화해의 가능성 모색에 도움을 주는 희망적 흐름을 열거한다. 사회 전반에 종교적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들도 다원주의 상황을 재발견하고 있다. '문화 전쟁' 대신 화해

<기독교와 시민사회> | 로버트 우스노우 | 정재영, 이승훈 공역 | CLC | 2014



를 힘쓰는 것은 신앙인이 자신의 사회적 신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쟁점은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시민 의식을 유지하면서 생산적 대화에 참여”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 사회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기에 시장에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 따라서 시장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시민 사회의 건강함은 단체들 사이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악의 현실에 무디고 법을 지킬 의무에서 면제된 듯 행동하는 것은 큰 문제다. 그들도 남들처럼 부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제도적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와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문화와 다원주의가 시민 사회에 제기하는 도전은 무엇이며, 기독교는 그것에 대처해 적응할 능력이 있는가? 교회는 시민 사회와 밀접히 관련이 있어 다양성이 증대하는 다문화 사회 현실에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 대응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 “정체성 정치로서의 종교”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교회도 여타 단체와도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주장하는 방식이다. 둘째, “실용적 보편주의로서의 종교”로 기독교가 사랑과 봉사를 본질로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다문화주의의 상대주의 비전을 흡수하는 태도다. 셋째 “시민 비평으로서의 종교”다. 이는 다원주의 사회 내의 차이들을 인정하면서도 예언자적 역할을 회복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자세이다. 저자는 특별히 셋째 방식을 선호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단적 주장이 아닌, “기독교를 믿게 되면 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저자의 결론은 ‘지적 세련됨을 위한 호소’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으로 세련된 비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찬성, 반대 이상이다. ‘지적 세련됨’이란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토론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박식한 비평가들의 철저한 검토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며 “진리를 알고 있다는 자기 주장에 대한 약간의 통제력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 평가와 다른 이의 비판적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현실 분석에 필요한 눈을 열어준다.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민주주의 사회의 축복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참여의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도록 이끈다. 또한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현실 속에서 만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성경적 안목에 입각해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묻게 만든다. 지난날 기독교는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지적 세련됨의 요소를 가지고 시민 사회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지금은 혹시 무지와 무례로 기독교적 ‘세련됨’의 유산을 훼손하고 있지나 않은가? 저자는 질문만 던지지 않고 옳은 대답을 찾을 통찰도 제시해준다. FAITH & LIFE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긴급성

김회권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이 책은 2012년 종교개혁 기념 주간(10월 28일-11월 3일)에 서울 영동교회(정현구 담임목사)에서 개최한 종교개혁 기념 사경회의 다섯 차례 강좌의 결실이다. 이 강좌는 하나님 나라, 즉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꿈꾸어지고, 아들 하나님에 의해 땅에 실현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새롭게 되며 세상 속으로 육박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이미지를 살리는 데 초점이 있었다.

제1강 ‘모세와 예언자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김회권, 숭실대 교수)은 창세기부터 예언서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전망을 다룬다. 하나님 나라는 아담에 의해 좌절되었으나 아브라함 이후 다시 땅에 통치 거점을 확보했다.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주제와 향도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난 장(場)이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표본 공동체, 곧 언약 공동체 형성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예언자였다. 모세 이후 예언자들은 모세가 남겨둔 토라를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동시대인에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토라 의존적, 토라 참조적 중보자들이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우고 온 세상을 견인하는 구심운동형 모형이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 비전과 꿈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100% 실현되었다.

제2강 ‘다윗과 시편의 하나님 나라 복음’(김회권)은 시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층위와 지상구현 과정을 해설한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성

장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다윗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소규모 동아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다층적으로 드러난다. 다윗과 시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 확장에 결정적인 통로임을 강조한다. 특히 시편 103:19-22이 가리키듯이, 시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천군천사급 성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복음이다. 천군천사와 천군천사급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또한 겸손하신 하나님이다.

제3강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김세윤, 풀러신학대학원 교수)은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해설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네 가지 전제를 파악해야 한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는 창조 사상. 둘째, 아담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 땅이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고 보는 타락 사상. 셋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 다스리겠다는 언약 사상. 넷째,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를 보내어 사탄의 세력과 그 앞잡이 열방을 깨뜨리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종말 사상.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 계명을 요구한다. 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같이 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복음〉 | 김세운, 김희권, 정현구 | 새물결플러스 | 2013




제4장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김세운)은 로마서 1:2-4, 고린도전서 15:23-28, 골로새서 1:13-14, 로마서 10:9을 토대로 한 하나님 나라의 해설이다. 로마서 1:2-4은 사무엘하 7:12-14의 나단 신탁에 근거한다. 특별히 골로새서 1:13의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주권 전이'(Lordship transfer)이다. 골로새서 1:14은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을 구속(救贖), 즉 칭의론적으로 해석한다. 요약하면, 첫째, 칭의는 '주권 전이'이다. 둘째, 칭의론은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법정적 칭의를 넘어 관계론적 차원을 포함한다. 셋째, 칭의의 현재적 과정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회 윤리적 실천이 포함된다. 즉 칭의론의 초점은 우리 삶뿐 아니라 전 사회적·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다.

제5장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음"(정현구, 영동교회 담임목사)은 주기도문을 하나님을 위한 세 청원과 인간을 위한 세 청원으로 나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름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사람을 자유와 성숙의 존재로 만들 하나님 통치를 갈구하는 기도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는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구하는 탄원이

다. "죄를 용서해주소서"는 인간관계가 얽히고설킨 이 땅을 통치해달라는 청원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는 유혹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아버지의 다스림을 바라는 간구이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활을 통치하시기를 갈구하는 기도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시 전망과 인격적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세와 예언자들, 다윗이 바로 예수와 바울 안에서 무시간적인 대화와 영적 교통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핵심 주장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의 칭의 확신이 우주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결정적이라는 진리이다. 개인의 마음속에 자라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 하나님 나라 씨앗이 자라, 공중의 새들도 깃드는 공적인 하나님 나라로 성장되고 확장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희권



송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이다. 1979년 한국기독교대학인회(ESF)의 성경읽기 모임에서 회심하고 신앙훈련을 받았으며,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11년간 간사로 섬겼다.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석사신학 석사 및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사사기·룻기〉,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등이 있다.

공공신학의 다양한 얼굴

최경환 (‘과학과 신학의 대화’ 사무국장)



내가 사는 사회와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될 무렵,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책들을 읽다가 우연히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관련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국내에 소개된 공공신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체 내용 중 일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공공신학의 전체적인 윤곽과 밑그림을 보여주는 책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2018년 가을에 ‘에라스무스 연구소’에서 ‘공공신학과 정치신학의 미래’라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쓴 글과 그동안 몇몇 학술지에 투고한 글을 다듬어서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공공신학으로 가는 다양한 길을 소개한 책이다. 공공신학의 기원과 그 내용에 대한 전체 지형도라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영국, 독일, 남아공, 브라질, 미국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신학을 소개하고, 공공신학의 중요한 파트너인 현대 정치철학의 논의도 간단하게 소개했다. 구체적인 적용이나 실천적인 내용보다는 공공신학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많이 다루었다.

공공신학은 기독교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복음의 정체성과 공론장의 원칙, 어느 하나를 포기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학문이다. 넓게 보면 복음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전통적으로 실천신학이나 선교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공공신학이 발생한 다양한 원인과 기원을 6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했다. 공공신학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다국적 기업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신학부터 전통적인 해방신학의 의제를 더욱 급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신학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세계화에 대한 의견도 저마다 다르고, 정치참여에 대한 의견도 모두 다르다. 공공신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공론장의 성격에 대해서도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공공신학은 각 지역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신학으로 대답하는 방식, 즉 귀납적으로 혹은 아래로부터 신학을 구성해야 한다는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 최경환 | 도서출판 100 | 2020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한다고 하면, 먼저 현실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신학은 학제 간 연구이고, 다양한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신학을 재구성해야 한다.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철학, 문화연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공공신학이 이런 학문의 도움을 받아 한국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도 갱신되지 않을까 한다.

한국 교회는 토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비판, 견제, 혹은 수용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배워야 한다. 더불어 타자와 함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양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 ‘상식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이익집단’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공론장에서 교회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확신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논증이 정합성, 일관성, 논리적 합리성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것이 공공신학의 대전제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담론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왜곡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정치와 사회가 외면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목소리

를 상실한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공공신학의 역할이다. 이 책은 공공신학의 기원, 발전,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경환

‘과학과 신학의 대화’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인문학 &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백석대 대학원에서 신학, 고려대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지은 책으로는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우리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공저)가 있다.

성령의 열매

문준호 (디오스텍 부장)



이 책은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강해 설교를 기반으로 쓰였다. 원제는 <Becoming Like Jesus: Cultivating the Fruit of the Spirit>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해 다루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한다. 저자는 “오늘날 성품은 교회의 삶과 활동의 많은 부분에서 대단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27면).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 성경을 인용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책은 배우자와 자녀, 손주들에게 헌정되었으며, “예수 닮기”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목차는 서문, 프롤로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루는 각 장을 읽으면, 각 덕목에 대한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내용의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맺어가는 실천에까지 이르는 것이 저자가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번역본의 부제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핵심적인 방법의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기르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규칙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우리의 됴됨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성령의 은사와는 다

른 것이다.(275-280면) 물론, 율법 자체는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모든 규칙을 지키라는 한쪽 극단인 율법주의와 모든 규칙을 거부하는 다른 쪽 극단인 방종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율법주의에 지배받아도 안 되고 죄악된 본성에 지배받아도 안된다.(19, 284면).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신다.(291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저자가 인용한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의 글은 이에 관한 좋은 깨달음을 준다: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나에게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셰익스피어는 그럴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예수의 삶과 같은 삶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럴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그

〈성령의 열매〉 | 크리스토퍼 J. H. 라이트 | 박세혁 역 | CUP | 2019



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다.(292면)


오직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돌이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 이 책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설명보다는 실천적 적용을 염두에 두었다. 각 장에서 다루는 덕목에 대한 내용을 독자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이 책의 취지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복음의 소식에 대한 믿음, 그분의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사랑은 성령을 통해 증진된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더 나은 세상, 그러한 세상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닐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선한 실천이 넘쳐서 교회 밖으로까지 흘러가고, 개인의 차원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세상을 더 잘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 복음의 핵심에 집중하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고민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드러내는 기본으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성령의 열매는

매우 중요하다.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고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르고 그 열매를 맺어 감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상의 변화는 변화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효과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된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을 지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러한 개인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시작은 여전히 각 개인의 변화로부터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으로 변화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 개인과 공동체가 맺게 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인 복음의 증거이자 천상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품들은 규칙과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278면). 그러한 성품들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독과 실천적 적용을 적극 추천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문준호

디오스텍 부장이다. KAIST 물리학과에서 광학을 전공했고(Ph.D.),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다(M.A.)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 감사로 섬기고 있다.

'현대'(Modern Age)를 넘어서

추천 : 웨슬리 Wentworth (Wesley Wentworth) 선교사

해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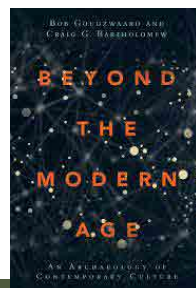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현대의 고고학'. 2부, '초월과 현대 : 현대를 넘어가기 위한 재료들'. 3부, '현대 너머의 길 찾기'. 책은 네 가지 역설을 제시하면서 시작한다. 빈곤 역설, 시간 역설, 돌봄 역설, 고용 역설, 환경 역설. 이것이 역설인 이유는 '현대'(Modern Age)의 발전은 빈곤을 추방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돌봄을 받으며, 더 많이 고용되고,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이 전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역설들이 책의 주조를 이룬다.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현대 세계관은 네 개로 정리된다. 1) 고전 현대 세계관, 2) 구조 비평적 현대 세계관, 3) 문화 비평적 현대 세계관, 4) 포스트모던 세계관.

현대 서구 자유시장경제 사회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생겨났지만, 그것의 뿌리는 16,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데카르트, 마키아벨리, 다빈치, 홉스, 아담 스미스, 존 로크, 루소, 벤담의 사상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현대가 신을 추방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낳았는지 보여준다. 고전 현대의 세계관은 반종교(anti-religion)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은 내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두 세계관이 등장했다. 곧 구조 비평적 현대 세계관과 문화 비평적 현대 세계관이다. 구조 비평적 현대 세계관은 헤겔, 마르크스, 프랑

크푸르트 학파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고 있다. 이 세계관은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사회경제적 문제의 뿌리라는 견해를 가진다. 그에 비해 문화 비평적 현대 세계관은 마틴 부버, 발터 벤자민, 가브리엘 마르셀, 한스 요나스, 한나 아렌트, 에마누엘 레비나스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공유되었다. 이들은 구조 비평적 현대 세계관이 고전 현대 세계관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문제의 본질은 구조나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자신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네 번째 세계관은 포스트모던 세계관이다. 저자들은 이 세계관이 현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기에, 이데올로기의 의미에 대해 먼저 논하고, 특히 중요한 인물로 니체를 소개한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루기 위해 보드리야르, 푸코, 데리다를 설명한다.

하지만 현대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서두에서 소개한 네 개의 역설이 그 증거이다. 기독교를 떠난 유럽의 근대는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그 해결책이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립 리프, 르네 지라르가 이 선상에서 해답을 모색했다. 문제의 근원에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 다윈주의, 공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셴(Amartya Sen), 롤즈(John Rawls), 굿맨(Nelson Goodman), 카이퍼(Abraham Kuyper) 등의 연구가 소개된다. 공의의 문제는 곧 경

(Beyond the Modern Age : An Archaeology of Contemporary Culture)
 하트즈버트(Bod Goudzwaard) & 바르톨로뮤(Craig G. Bartholomew) | IVP | 2017



제적 불평등으로 연결되며, ‘끓주린 그리스도’의 주제가 다뤄진다. 가난한 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원칙이 다음 논의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결론적 논의는 점점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기독교와 가난의 문제를 부각한다. 여기서는 피터 브라운의 연구를 중요하게 다룬다.


3부는 ‘현대 너머의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룬다. 경제적 불평등, 인구 증가, 기후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의 감소 같은 것들이다. 앞에서 많은 학자들의 논의는 결국 우리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언뜻 사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다. 이후 내용은 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해법, 그리고 성공한 경제적 시도들의 소개이다.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던 자리를 기술 문명과 시장 경제에 대한 신앙이 대체했다.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기술과 시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오직 기술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안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종교는 중요하다. 종교는 우리가 이 세계를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점에서 볼 수 있게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회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생산과 소비의 확대 재생산의 오류를 볼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 발전의

상한선을 정해야 하고, 각 사람은 수입과 소비를 일정한 선에서 묶어야 하며, 수입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충분의 경제학’이다. 이런 시도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특별히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가 이 책의 제안이 필수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 책은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경제와 사회 문제로 구체화 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세계관의 변화와 함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풍부한 연구 자료와 통찰이 번뜩이는 이 책은 대학의 교양 필독서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책으로 보인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곱씹으면서 정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2020 추계학술대회 이모저모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10월 31일, 토)



주제 : 생태, 환경 그리고 건강
 일시 : 2020년 10월 31(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국립 목포대학교(70주년 기념관) & 온라인(YouTube & Zoom)
 주최 : 국립 목포대 교수신우회, 기독교학문연구회

* 관련 동영상(논문 자료)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10:00~12:00

대학원생 논문발표회(온라인, Zoom)에는 5개 대학 8명의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심사를 거쳐 정문선(성균관대 교육학 박사과정)의 논문이 새로남 교회(오정호 담임목사) 후원, '새로남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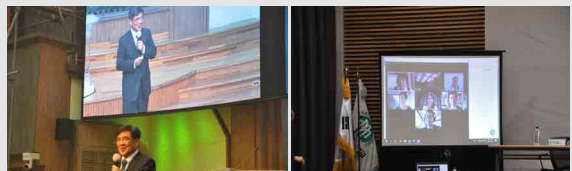
오후 1:30~3:20

주제강연 시간에는 유영춘 교수(건양대 의대)의 '창조질서의 관점에서 본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면역체계의 변화', 홍중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가능성 : 기독교인의 관점', 노영삼 박사(순살사이버대 이사장)의 '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이 발제되었습니다.



오후 3:30~6:00

교수/일반부 논문발표회에는 현장 2개 분과, 온라인(Zoom) 8개 분과에서 총 39개의 논문 발표와 논찬 및 토론의 시간이 있었으며, 저녁 7:00~9:00에는 목포 사랑교회(백동조 담임목사)에서 박동열 교수(서울대 불어교육과, 동역회 실행위원장)의 청년대학부 '기독교 세계관' 특강이 '기독교 세계관과 청년의 삶'이라는 주제로 있었습니다.



창조질서의 관점에서 본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면역체계의 변화

유영춘 (건양대 의대 교수, 미생물학)

2020년 10월 22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41,172,620명, 사망자는 1,131,316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촌 최강국 미국이 누적 확진자 821,5만명, 누적 사망자 222,700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 보건의로 체계는 거의 붕괴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집으로 보내진다. 반면에 극히 일부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최고 의료처방을 받는다. 차별적이며, 결코 모범적 방역체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전문가들은 약 2~5년을 본다. 그러나 영원히 갈 수도 있다고 불길하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코로나 19’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이고, 변종과 증식이 매우 빠르다. 보통은 숙주 관리만 잘 하면 곧 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RNA 유형의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서 백신이 나와도 정확한 대처가 보장되지 않는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숙주는 박쥐나 천갑산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결코 사람들과 가깝지 않은 동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 전파되었을까? 인간이 자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한 동물들의 영역에 침범했다. 돈벌이를 위해 그 영역을 심하게 파괴했다. 결국 먹이가 줄고, 인간과 대면하게 되었다. 또 관광을 위해, 농산물 생산지 확보를 위해서 그 영역은 침범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교하고 신비한 신체 면역체계를 잘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보통은 질병으로부터 잘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고, 대기 상태를 오염시켰다. 또 흡연, 음주, 인간의 욕심 등 어떤 이유들 때문에 현재 인간 면역체계

의 1차 방어선이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호흡계의 면역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로나 19’의 경우는 치명적이다. 면역체계가 약화된 노약자들은 큰 위협의 조건 아래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기독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고인가, 재림 예수의 징조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인간의 오만과 파괴가 이러한 전염병을 자초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권한을 주셨으나(창 1:26-28), 그런데 이 권한은 관리와 보전의 의무를 동반한다. 인간이 자초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림 파괴, 땅과 수질 오염 등으로 지구촌 공동체 전체가 탄신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19’는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1) 무절제한 소비와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대규모 방식으로 인한 환경파괴(커피 농장, 목화농장, 음식문화 증가 등). 2) 일회용품 소비, 과도한 여행 및 레저 문화, 성적 타락, 외모 지향적 가치관. 3) 빈부 격차의 심화, 15%가 85%의 부를 소유하는 그릇된 자본주의 사상의 오용. 4) 청지기 소명을 망각한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 자연 생태계의 극단적 훼손 등.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이 현재 도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감염병의 대유행을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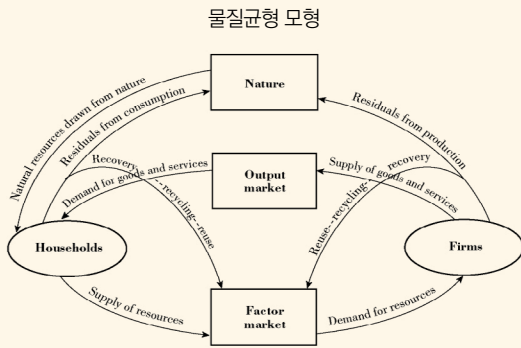


본 주제강연()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의 발제 논문이며, 전체 내용과 동영상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성 : 기독교인의 관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제학)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자연과 환경은 다음 세 가지다. 1)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주류 경제학. 2) 자연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의 환경 경제학. 3) 자연을 보존의 대상으로 보는 '생태 중심주의'(ecocentrism)의 생태 경제학.



이른바 주류 경제학에서 경제순환의 기본 구조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 소통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부상한 환경경제학자들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경제 순환구조에서 아직 고려하지 못했던 '자연'의 영역을 추가하였다. 즉 경제순환 시스템에서의 물질 균형 모형을 상정하였다. 여기서 '자연'은 경제 순환 기본 구조 상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등의 부산물들을 정화한다. 경제는 자연의 토지, 물, 공기 같은 요소의 항목들과 연계해서 고려해야 한다.

기독교의 환경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 중심주의'(theocentrism)이다. 우리는 최근 '인간 중심주의'(anthropocentrism) 대 '생태 중심주의'(ecocentrism)의 논쟁들을 많이 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관점과 목적 아래에서 '칭지기 사명'(stewardship)을 부여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

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창 2:5)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다스리라'(cultivate, 경작하다), '지키라'(keep, take care of, 보전하라)는 것은 '책임 있게 다스리고 보존하라' 하는 말이다.

낙동강의 내성천, 회룡포 등의 특정 부근들을 약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연구했다. 사진 자료 등을 통한 변화 추이를 관찰한 결과, 자연 생태의 보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활동의 추구가 얼마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즉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댐 건설 등은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한다. 반면에 한국이 한국 전쟁 후에 황폐된 산림에 대한 성공적인 조림 사업, 또 순천만의 생태계 회복 사업 등은 어떻게 경제와 생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경제와 자연 생태 보존은 모순의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의 위기는 최고의 과제이다. 2020년은 이에 대한 한국 국민 의식의 전환기적 계기가 된다. 이례적인 최장의 장마 및 연속적인 태풍 등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 지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그리스도인 지식인은 '남은 자'로서 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본 주제강연(III)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의 발제 논문이며, 전체 내용과 동영상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노영상 (승실사이버대 이사장, 전 호신대 총장)

‘건강도시 운동’은 1980년대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주도되었다. ‘건강도시 운동’은 의료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환경문제를 함께 중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건강은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다. 정신적이고, 사회적이며, 자연적인 환경을 그 정의 속에 내포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약 100여 개의 지자체가 이 ‘건강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 예장 통합교단에서 벌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 곧 ‘마을목회’ 운동과 그 궤를 같이한다. 개인만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나’의 잘됨만을 위한 관습에서 벗어나 마을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추동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결코 개인에 국한된 행복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즉, 우리는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을 폭행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족들의 행복은 나 개인의 정신적 안정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특별히 성경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구원을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생의 개념은 주님이 주신 ‘조에’(ζωή)로서의 생명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 개념을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 만드는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 생명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마을을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의 목표를 생태적 생명 공동체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전체가 생명이 보호되는 생태적이며 건강한 마을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성경의 생명 운동을 공공신학적 입장에서 구현하는 한 실제적 방안이다.

또한 ‘건강도시 운동’은 해외선교적인 차원에서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 보건 선교)라는 개념으로 실천되어 온 바 있다. 지역사회 보건 선교 운동을 가장 선두에서 진행하여 온 단체는 월드비전으로 이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세계의 마을들을 건강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선교적 노력을 해왔다. 이들의 입장은 이러한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돕는 것과 주님의 영적인 복음이 서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경제적으로 자조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도시 운동’은 오늘 우리 교회가 공공신학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실천의 구체적 방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채택하여 서로 힘을 합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가다 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그들도 복음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주제강연(III)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의 발제 논문이며, 전체 내용과 동영상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

김정일 (삼일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담당목사)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의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는 2013년부터 시작된 '삼일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의 한 과정으로 2017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었다. 보통 '어린이 세계관 학교'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계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 과정은 교회에서 어린이 대신 부모를 먼저 교육시키고, 교육받은 부모가 자녀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가정과 부모가 자녀 신앙의 주체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는 CTC(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 유경상 대표)와의 협력 사역이다. CTC의 3년 6학기 '어린이 세계관 학교'의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CTC의 프로그램은 매 학기 별도의 주제가 있다. 그 6개의 주제는 각각 '생각', '미디어', '성품', '꿈', '공부', '칭지기'이다. 각 학기는 12주 훈련으로 구성되고 있다. CTC 교재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세계관 학습 교재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부모교육을 1시간 30분간 진행을 하고, 다시 부모들이 수업 준비를 해서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 모여 함께 자녀들을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는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의 수업 형태를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회가 어린이 세계관 학교에 참석하는 부모 선생님과 자녀들로 인해 시끌벅적했다. 수업을 마친 후에는 엄마 선생님, 아빠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함께 수업 피드백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모일 수가 없게 되었다. 결국 지난 학기에는 마지막 6학기 과정을 개설하지 못했다. 그런데 교회에 함께 모여 수업은 할 수 없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는 오히려 어린이 세계관 학교 본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수개월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에 참석했던 몇몇 가정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각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정과 부모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 본래의 교육 목적이 '코로나 19' 사태 기간에 성취되고,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 진행하지 못했던 6학기 '칭지기' 과정을 온라인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 온라인(Zoom)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주중에 각 가정 별로 부모 교사들이 자녀들과 세계관 학교 수업을 한다. 매번 가정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수업을 확인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온라인 수업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녹화영상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모일 수 없게 된 상황,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는 교회 교육의 위기 속에서 '삼일 어린이 세계관 학교'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주님의 한 수'가 되고 있다. **FAITH & LIFE**

삼일교회 어린이기독교세계관학교 간증문

‘하!이!세!’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가정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 하!이!세! 파이팅!”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 집 식탁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예전 같으면 교회에 모여 다 함께 힘차게 외치고, 신나게 율동도 했을 텐데,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들이 모두 멈추었다. 매일 등교하는 아이들로 북적이던 학교는 문이 굳게 닫히고, 매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던 교회도 문이 굳게 닫혀버렸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아이들과 온종일 붙어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놀기만 해도 되는 것일까, 다른 아이들은 달려가는 것 같은데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 생각보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더 집중해 보기로 하니, 2학기 동안 교회에서 어린이 세계관 학교를 통해 배운 것들이 생각났고 바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CTC 유경상 대표님이 쓰신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와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를 가지고 엄마와 아빠가 선생님이 되어서 2주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가정 어린이 세계관 학교를 하였다.

강의 없이 책만 읽고 내용을 소화 시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편이어서 집중하는 시간도 짧기에 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구하게 되었고, ‘삼일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통해 만난 다른 엄마 선생님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따로’이지만 또 ‘같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어린이 세계관 학교의 좋은 점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운 ‘순종’, ‘감사’, ‘배려’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 가장 유익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이들과의 대화가 풍성해지면서 잔소리, 칭찬과 격려 모두를 은혜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옆 분단까지 청소해서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은 아이를 격려할 때, “잘했어. 대단하다!” 대신 “옆 분단 친구들을 위해 청소하여 이웃사랑을, 교실 환경 개선을 하였으니 세상 돌봄을, 그것으로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하!이!세!’를 실천하였구나. 너무 멋지대!”라고 칭찬해 주었다. 이렇게 일상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안경 ‘하!이!세!’를 쓰고, 이 땅을 살아가는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가정으로 세워질 길 꿈꾸며 기도한다.

 글쓴이 김주은

삼일교회 청장년 3진에 소속된 성도이다. 매주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을 외치며 8세 예송이, 6세 예담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이자 선생님이시다.



한국교회를 위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유산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올해로 서거 100년을 맞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학자, 저술가, 목회자, 언론인, 정치인, 교육자였다. 때문에 매우 다양한 평가와 별명이 있다. 오늘 강연은 카이퍼가 1898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행한 <칼뱅주의에 관한 스톤 강좌>(Stone Lectures Calvinism), 자유대학교 설립자(1880)로서의 카이퍼, 그의 핵심적 유산으로서 200여 권의 저작에 초점을 맞추겠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종', '비전을 좇은 사람', '작은 자들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사람', '칼뱅 이후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는 평가의 측면에 주목한다.

카이퍼는 정통 신앙과 현실 감각의 균형을 평생 잘 유지한 사람이었다. 첫째, 그의 '사상적 유산'은 <정치 강령>, <하나님께 가까이>, <기독교의 사회문제>, <칼뱅주의 강령>, <공공신학과 성령> 등과 같은 저서들에서 잘 드러났다. 종교 개혁의 전통과 칼뱅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의 유산이다. 이것은 '대립'(antithesis), '일반은총'(Common Grace), '왕을 위하여'(Pro Rege)라는 핵심 용어로 상징되며, 이 모두의 토대가 되는 용어는 '세계관'(Worldview)이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죽은 정통에 맞선 '대립'의 화신이었다. 또한 이 유명한 '대립' 사상은 역사적으로 '근대성'(Modernity)과의 씨름에 대한 것이다. 근대는 중세의 그리스 로마 세계관과 히브리적 세계관의 종합이 해체되면서, 인본주의, 자연주의, 계몽주의의 발흥 속에 기독교 세계관이 위축되고 분열되면서 직면한 위기의 시대였다. 여기서 카이퍼의 위치는 근대의 과학주의와 정치 자유주의,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서 기독교 정통 개혁주의 사상을 회복하려는 독특한 사상의 유산을 남긴 인물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카이퍼는 이 회복을 위한 '일반은

총'의 사용을 제안한다. 칼뱅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주님의 은총을 누리라는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더 나가서 일반은총을 문화 활동에 적극적 기초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둘째, 카이퍼의 '실천적 유산'은 '그리스도인의 사회활동'(Christian Social Action)의 측면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칼뱅주의 운동이며, 그 견인차는 '반혁명 사상'(Anti Revolutionary thought)이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영역주권 사상'을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하여 우선 내부적으로 정통 신앙과 보수적 신앙을 구분하면서 국가 교회를 개혁하려는 '애통자'(Doleantie) 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드는 운동을 병행하였다. 조심할 것은 우리가 카이퍼를 '작은 자들의 종을 울리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측면을 주목하지 못하면 그를 승리주의 정치인으로 오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실천적 유산은 결국 복음의 공공성, 공공신학, 기독교 시민운동의 개념들과 연결되며, 캐나다의 'CPJ'(Citizens for Justice), '기독교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한국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맹회'는 그 귀한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강연의 전체 동영상은 유튜브 https://youtu.be/Cuuk-VI_8N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0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일시: 2020년 9월 7일(월) 오후 8시 / 장소: Zoom 회의
참석: 27명 대의원 중 19명 출석 / 안건: 결원 감사 선출 - 문준호((주)디오스텍 부장) 선출됨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입 감사 서울 교육청 승인

문준호 감사 ((주)디오스텍 부장, 2020.09.11 ~ 2022.09.10.)

〈신앙과 학문〉 25권 3호(2020년 9월 30일) 발간

최용준(한동대 교수) 등 총 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020년 제3차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2020년 10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Zoom 회의
참석: 17명 실행위원 중 11명 출석

2020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8시 / 참석: 10명 이사 중 8명 출석
안건: 동역회 본부(사무국) 이전(새주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910호)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 개최(온·오프라인)

주제 : 생태, 환경, 그리고 건강
일시 : 2020.10.31.(토) 10:00~18:00
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 제5공학관(Zoom & YouTube 현장중계 병행)
주최 :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신우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주제강연: 유영춘 교수(건양대 의대), 홍중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노영상(송실 사이버대 이사장)

- * 대학원생부 논문 발표: 2개 분과(교육, 세계관) - 총 8편
- * 대학원생 (새로남 청년우수논문상) 수상자: 정문선(성균관대 교육학 박사수료)
- * 교수/일반부 논문 발표: 온라인 8개 분과 & 오프라인 현장 2개 분과 - 총 37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박영주(前 중앙기독교총회학교 교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까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생병원 의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문준호(디오스텍 부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교사),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대표),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총 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불문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신학),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교육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한동대 교수, 외교학), 신응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우종학(서울대 교수, 물리천문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현은자(성균관대 교수, 아동청소년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Paul Lim(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2021년 봄학기부터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과정(M.Div - WPS)이 새롭게 개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강사 '기본 과정' :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년 동안 40여 명의 교육생이 매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내년에는 어린이 & 청소년 세계관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 9월부터 3학기, 4학기가 진행될 예정.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 :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다양한 세미나와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다(문의: CTC 사무국, 010-3673-8439). * 11월부터 (나니아 연대기-캐스피언 왕자) 개강

- 온라인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 개설예정 : 2020년 하반기에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 원리 6강, '부모 세계관 학교' 실제 6강, 총 12강을 온라인으로 개설 예정이다. 또한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온라인 어린이 세계관 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ACT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2학기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수업 진행 중

- 기독교세계관교육 베이직 세미나 : 줌(zoom)으로 온라인 세미나 진행

* 일시 : 11월 30일, 12월 7일 2일 진행, 오전 10시-오후 3시 * 신청 및 문의 : 010-2792-5691(CTC 사무국)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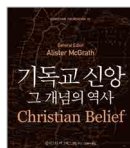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이다.

www.cupbooks.com *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시대 흔들리는 영성을 든든하게 잡아 줄, 게리 토마스의 스테디셀러 영적 거장들에게 배우는 기독교 영성의 진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전면개정증보판)



<기독교 신앙, 그 개념의 역사>

알리스터 맥그라스 편집 주간 (곧 출간 예정) "훌륭하다. 21세기 변화된 상황에 최적화된 신앙 입문서이다. 변증서이기도 하다. 존 스투트의 최고 걸작인 <기독교의 기본진리>의 확대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0년 9월, 10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0년 6월	2020년 10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0년 9월	2020년 10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470,000	2,8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600,000	4,600,000
	임원회비	440,000	1,340,000		기타급여	1,222,860	600,000
	일반회비	3,909,500	4,553,500		소계	5,822,860	5,200,000
	기관후원금	2,550,000	2,6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000,000	2,00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0	0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03,050	120,669
	CTC후원금	70,000	70,000		우편료	2,980	108,950
	VIEW후원금	1,110,000	1,590,000		소모품비	0	0
	기타후원금	2,000,000	2,000,000		비품	0	0
	월보구독료	345,000	306,000		수선비	0	0
	학술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494,080	570,27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퇴직연금	225,670	225,670
	기타	225,000	220,000		컴퓨터	0	0
			교육비		0	0	
			회의비		0	13,10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30,000	90,000	
			서무비		156,200	156,200	
			기타(지급수수료)		120,718	121,143	
			소계		3,187,698	3,461,002	
	11,119,500	15,549,500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0
	법인이자	0	0		도서구입비	0	0
	법인세환급금	0	0		CTC후원금	69,175	0
	기타수입	0	0		VIEW후원금	1,191,420	0
	기금차입	400,000	400,000		학술지원금	0	0
	결산이자	2,413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예수금	304,110	314,050		10선컨텐츠	0	0
				소계	1,260,595	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0	0
					인쇄비	2,523,400	0
			발송비		538,230	0	
			소계	3,061,630	0		
			기타	임차보증금	0	1,000,000	
				CUP기금적립	400,000	400,000	
				세금	25,360	25,360	
				잡비	6,000	0	
				소계	431,360	1,425,360	
	706,523	714,05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소계	0	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70,000	17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1,050,000
	학회행사수입	0	610,000		학회장소사용료	0	290,00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1,363,00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2,697,100
	학술지심사비	0	70,000		학술지인쇄비	0	1,915,493
	학술지계재료	2,190,000	0		학술지발송비	0	509,010
	저작권료	0	1,426,370		학술지심사료	0	730,000
	학회기타수입	1,090,000	4,750,10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	0	512,950
			소계	0	9,067,553		
	3,450,000	7,026,47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838,825	839,38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839,385	1,159,440
	전월 이니시스입금	17,000	4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7,000	50,000
	소계	855,825	879,385		소계	856,385	1,209,440
	16,131,848	24,169,405		당월 지출액	14,620,528	20,363,355	
	24,435,841	25,947,161		차월 이월액 (잔액)	25,947,161	29,753,211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0년 9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허태실, 5천 강대웅, 공승근,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운, 김정명, 김정식, 김태영, 김해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찬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유충열,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하, 이성은, 이수인, 이은수, 이종혁, 이항수,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이찬수, 조성진, 최연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성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수,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웅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중, 김남진, 김봉우, 김도형, 김동원,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경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자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민, 김홍성, 김효숙, 남순서, 노순석, 리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상희, 박승호, 박시윤,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이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중철, 송철호, 송태상,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심재훈,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양성희,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치상, 유해무, 유화원, 윤상헌, 윤숙자, 윤영배, 윤태경,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혜리, 이행로, 이현중, 이한일,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항록,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문선, 정민석,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장성, 정현규, 정현주, 정희일,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철수, 조현용, 조현희,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우, 최성호,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희수, 허신아, 허연, 허진영, 허현, 홍구하, 홍대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민, 홍판석, 황기철, 황도영,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성기진, 정상섭, 2만 강용란, 김민경, 김보경, 김세광, 김용석,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계호,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빛과소금교회, 송찬호, 신호기,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강, 이기서, 장인석,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방목,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오익석,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최희정,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문석윤, 박순자, 우병훈, 이창우, 5만 김중우, 김택호, 박정식,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한윤식, 6만 석준준,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박영주, 손봉호, 손정업,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계 4,439,500원

기관후원

5만 개동교회, 고양제일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서로서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더세움교회, 마포중앙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돌교회, 20만 남서울은혜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4,600,000원

전체 11,039,500원

회원후원

(2020년 10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허태실, 5천 강대웅, 공승근,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운, 김정명, 김정식, 김태영, 김해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찬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유충열,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하, 이성은, 이수인, 이은수, 이종혁, 이항수,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성기, 손화정, 이윤택, 이은수,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웅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중, 김남진, 김봉우, 김도형, 김동원,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별, 김성규,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경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자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민, 김홍성, 김효숙, 남순서, 노순석, 리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상희, 박승호, 박시윤,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이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중철, 송철호, 송태상,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심재훈,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양성희,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치상, 유해무, 유화원, 윤상헌, 윤숙자, 윤영배, 윤태경,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혜리, 이행로, 이현중, 이한일,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항록,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문선, 정민석,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장성, 정현규, 정현주, 정희일,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철수, 조현용, 조현희,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우, 최성호,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희수, 허신아, 허연, 허진영, 허현, 홍구하, 홍대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민, 홍판석, 황기철, 황도영,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성기진, 정상섭, 2만 David Han, 강혜영, 김보경, 김세광, 김용석,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계호,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백은석, 송찬호,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강, 이기서, 장인석,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방목,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임준용, 오석현, 오익석,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강용란, 문석윤, 박순자, 변영민, 심은희, 우병훈, 조주영, 5만 김중우, 김택호, 박정식,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한윤식, 6만 석준준, 윤순영, 이연호, 6만7천5백 김동원,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박영주, 손봉호, 손정업, 신국원, 이원식,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이봉근, 15만 이형직, 30만 김대인, 33만 나용근, 60만 이재희, 240만 조성표,

계 10,849,500원

기관후원

5만 개동교회, 고양제일교회, 다은공동체교회, 마포중앙교회, 서로서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안양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향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돌교회, 20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4,650,000원

전체 15,499,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디오스텍 부장,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정회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홍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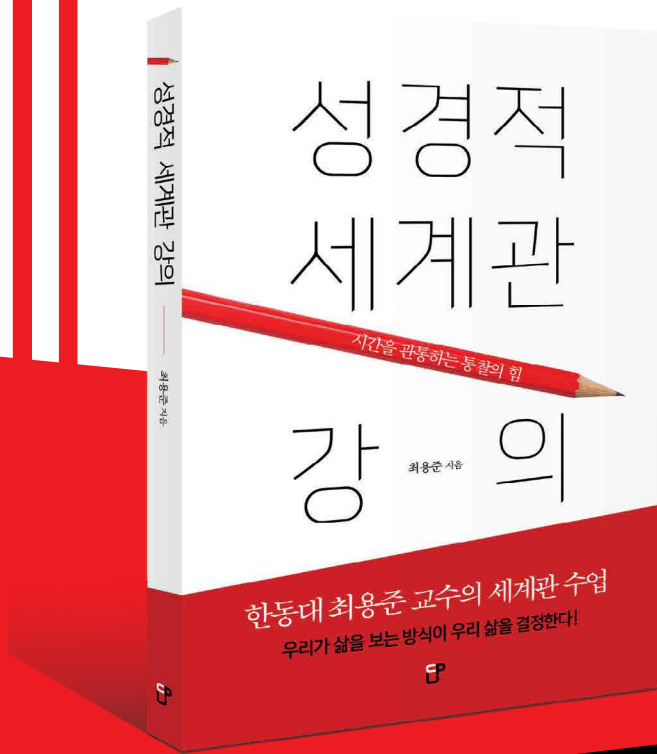
황영철

성경적 세계관 강의

시간을 관통하는
통찰의 힘

최용준 지음

우리가 삶을 보는 방식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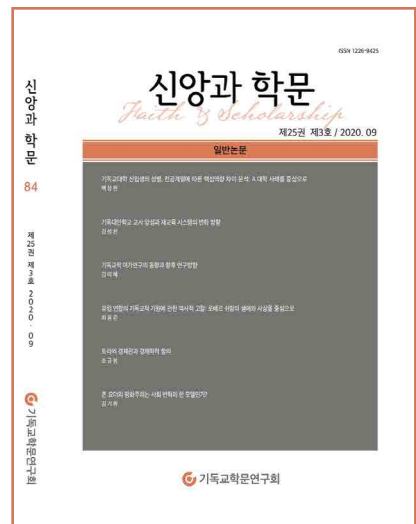
“그런데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라!
커피 한 잔과 함께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함께 읽으면 6주 간의 스터디 교재로 딱이다!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투고안내

-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신학과 학제간의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 ◆ 2020년 6월 1일 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상세안내**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
‘학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 **일반 문의** : gihakyun@daum.net (사무국, 학회)
- **신앙과 학문 문의** : 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